

방어와 갈등 Defense and Conflict

알렉산더 캠벨 대(對) 장로교
Campbell versus the Presbyterians

장로교회는 16세기에 장 칼뱅과
존 녹스의 개혁운동으로 태어났다.

- 가톨릭교회 사제들이었던 루터(1517년)와 츠빙글리(1516년 혹은 1522년)가 각각 독일과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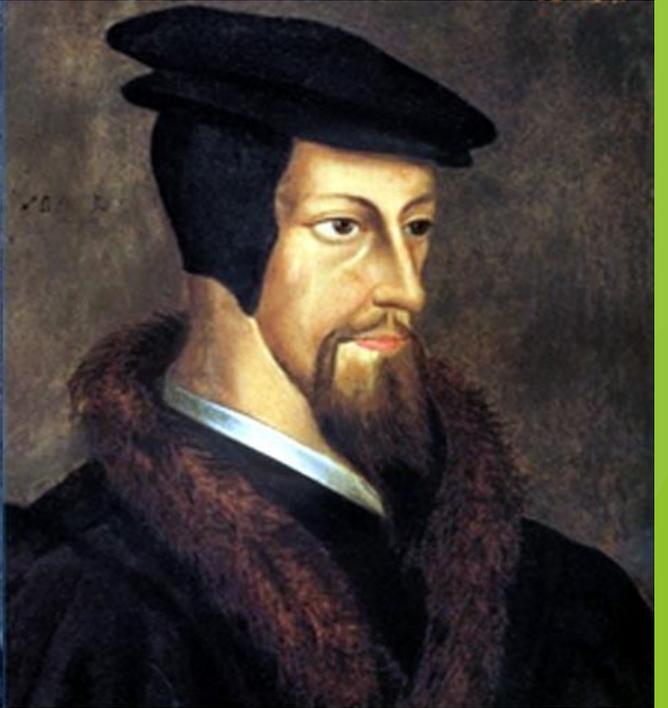
마르틴 루터
1483-1546



울리히 츠빙글리
1484-1531



하인리히 불링거
1504-1575



장 칼뱅
1509-1564

Martin Bucer (1491-1551)



- Born at Schlettstadt in Alsace
- Attended excellent humanistic school
- Joined Dominican order to further studies
- Sent to Heidelberg chapter because better educational opportunities there
- Met Luther there

장로교회는
부처가 주장한
두 종류의 장로
(감독과 장로)
체제를 칼뱅이
평신도
'장로대의제'로
발전시켜
제네바 교회에
적용하였다.



이 칼뱅의 평신도
'장로대의제'를
존 녹스가
스코틀랜드 교회에
적용하였다.
1689년
스코틀랜드 의회는
개혁신앙과

장로회주의 정치를 스코틀랜드의 국가종교와
교회정치로 수용함으로써 오늘의 장로교가 태어났다.

장로제도에 관하여

- 성경시대에 **유대교 회당**에는 복수(3명)의 남성 장로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회당장들이었다. 또한 이들은 회당의 관리와 민원을 해결하는 공회원(율법판사)들이었다. 이들은 예배와 교육의 책임은 물론이고, 율법규정에 따라 곤장을 치게 하거나 파문을 시키는 등의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마 10:17, 막 5:22, 눅 7:3, 21:12, 행 22:19).
- **그리스도교**에도 복수(3명)의 남성 장로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지역교회의 당회장(감독자와 치리자)들이었다.
- **초기 예루살렘교회**의 장로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다.

장로제도에 관하여

- 사도 야고보가 주후 44년에 참수를 당하자 그의 빈자리를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메웠다. 사도들은 순회전도를 위해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예루살렘교회의 수장은 야고보의 몫이 되었다(행 15:4, 6, 13, 고전 15:7, 갈 1:19, 2:12).
- 바울이 선교지에서 교회를 설립한 후 복수의 장로를 선출하여 장립한 것은 바로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들에 필적한 것이었다.
- 개개의 회당에 3명의 회당장 장로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교지 그리스도의 교회들에도 3명의 장로들을 세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로제도에 관하여

- 사도행전 14장 23절은 바울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개교회의 장로들은 지역교회의 목사(pastor)와 감독자(bishop)로서 그 역할과 임무가 신약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져 있다. 이때의 pastor와 bishop는 동일 직책이었다.
-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은 에베소교회의 장로들에게 그들의 직책이 양무리를 보살피는 목자와 감독자임을 주지시켰다.
- 야고보서 5장 14절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하였다.

장로제도에 관하여

- 베드로와 요한은 스스로를 일컬어 '장로'(pastor)라고 하였다 (벧전 5:1, 요이 1:1, 요삼 1:1).
- 개교회의 남성 장로들이 반드시 설교자일 필요는 없었다.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지역교회를 감독하고 목양하는 남성 장로들만의 몫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 1세기 말까지는 사도, 전도자, 선지자(예언자), 교사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순회 목회자들(ministers, 소수의 여성 포함)이었다.
- 성례를 집행하고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를 맡아 하는 남성 장로 설교자는 2세기 초 이그나티우스에 의해서 처음 언급되었다.

장로제도에 관하여

- **이그나티우스**가 서머나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언급한 **주교/감독(bishop)의 직무는 다수 장로들(pastors)의 으뜸** 곧 오늘날의 **담임 목사**에 필적하는 것이었다.
- 313년 박해시대가 끝나자 교회는 삼위일체와 단일신론으로 심각하게 분열하였다.
- 종교의 자유를 선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25년 **주교들(bishops)**을 니케아에 모이게 하여 이 문제를 토론하게 하였고, 삼위일체파들이 단일신론파를 누르고 만든 **최초의 삼위일체 신앙고백서**가 바로 '니케아신조'였다.

- 논쟁이 지속되었으나 380-90년대에 테오도시우스 대제,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가 지지한 삼위일체신앙이 보편적(가톨릭, catholic) 신앙으로 굳어졌고, 392년 제국종교가 되면서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었으며, 라틴어 성경과 라틴어 미사만 허용하는 미사의 제사화 곧 봉헌신학과 성체신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장로들이 제사장으로 둔갑**(presbyter = priest)되어 계급화 되었고(부제=집사, 사제=장로,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 혹은 보제, 사제, 주교, 대주교, 총대주교), 라틴어 미사만 허용함으로써 예배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와 대표기도가 예전에서 삭제 되었다.

- 이런 배경으로 지역교회 공동체들에서 떠돌이 순회 목회자 개념의 전도자, 선지자, 교사가 사라지게 되었고, 여성 사역자들(ministers)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 오늘날의 그리스도교 장로들은 16세기에 칼뱅과 존 녹스의 평신도 장로 대의제 도입에서 비롯되었다.
- 원칙은 회중에 의해 선출된 회중의 대표가 치리회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무렵 그리스도교는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국가교회체제였기 때문에 제네바에서는 20인, 60인, 200인의 시의회들에서 전통에 따라 여성을 배제한 채 남성들만으로 배정된 인원수대로 치리 장로들을 선출하였고, 칼뱅은 이들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한바가 있다.

- 존 녹스 역시 칼뱅이 제네바에 확립시킨 개혁교회 장로회 제도를 도입하여 스코틀랜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에 정착시켰다.
- 스코틀랜드에서 회중이 선출한 치리 장로들과 사제(장로)들로 구성된 당회(session)가 시작된 것은 1563년이였다. 이때 치리 장로의 임기는 제네바에서처럼 1년이였으나 인적자원의 부족을 이유로 1578년부터 종신직으로 바꿨다.
- 중요한 것은 국가교회 체제에서조차 16세기이후 그리스도교의 장로들은 임기가 제한된 평신도 선출직이었다는 점이다.
- 그 같은 대원칙이 미국에서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와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연방수정헌법(1791년 12월 15일)이 채택된 이후에 더욱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 **스톤-캠벨운동권에서** 19세기에 나타난 쟁점의 하나가 지역 회중(교회)들 속에 '정착한' 설교자들(preachers)의 직무상 목회자(ministers)의 지위였다.
- 1840년대 무렵 일부 회중(교회)들은 **젊은 대학 졸업자들을 설교자로 초빙하기** 시작하여 그들 공동체들 속에 정착하도록 하였다.
- 더 이른 시기에 발전된 장로직 형태와는 대조적으로 이들 개인들은 **목회자적 임무 수행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었다.
- 1865년까지 켄터키 주 렉싱턴 시에 하나의 특화된 '성서대학'이 회중(교회)에게 목회자의 일을 하게 할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있었다. **정착하여 보수를 받는 전문 사역(목회)의 등장**은 스톤-캠벨운동의 사역(목회) '체제'(조직)에 근본적인 변화들을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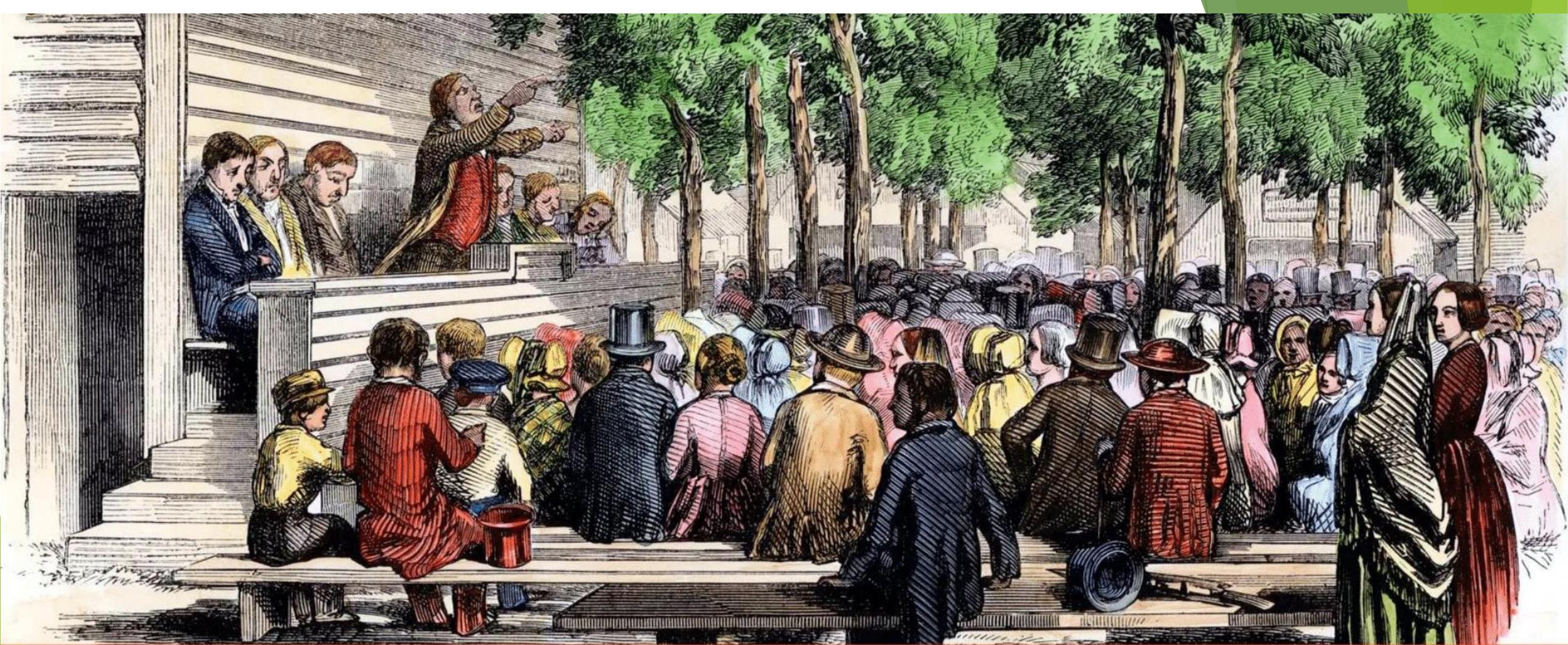
- 1804년 발톤 스톤의 ‘스프링필드장로회유언서’ 발표, 1809년 토마스 캠벨의 ‘선언과 제언’ 발표이후 꾸준히 발전되어온 스톤-캠벨운동은 1830년 알렉산더 캠벨이 침례교회를 탈퇴함과 동시에 <크리스천 뱍티스트>(Christian Baptist)지를 접고, <새천년 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지를 새로 시작하면서 오늘의 ‘그리스도의 교회들’,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제자들의 교회’가 출범하였다.
- 이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야 비로소 **‘유급 목회’** 혹은 **‘전문 목회’**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전문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들**이 필요로 되었던 것이다.

- 새로운 전문 사역(목회)을 수용하기 위한 기존 사역(목회) 체제를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개의 상반된 견해들이 동시에 발전했다. 논의가 1890년대에 뜨겁게 달아올랐고, 지속되었다.
- J. W. 맥가비(McGarvey)와 L. B. 윌키즈(Wilkes)가 목회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된 전도자였다는 견해를 지지하였다.
- 이 견해에 따르면, 목회자들은 장로들의 부름을 받고 그들의 엄격한 감독아래서 섬겼던 '정착' (불박이) 전도자들이었다. 전문 목회자는 장로들의 감시와 지배에 분명히 복종하였다.

- 아이작 에레트(Isaac Errett)와 J. H. 게리슨(Garrison)과 같은 영향력 있는 저널리스트들에 의해서 지지된 반대의 견해는 **목회자가 그 자신이 장로였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목회자는 주도적인 장로요, 동등한 사람들 가운데서 첫째였다.**
- 장로들은 조언을 하거나 주의 만찬 상을 섬기고 목양을 하곤 하였다. **목회자는 장로로서 일차적으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책임을 수행**하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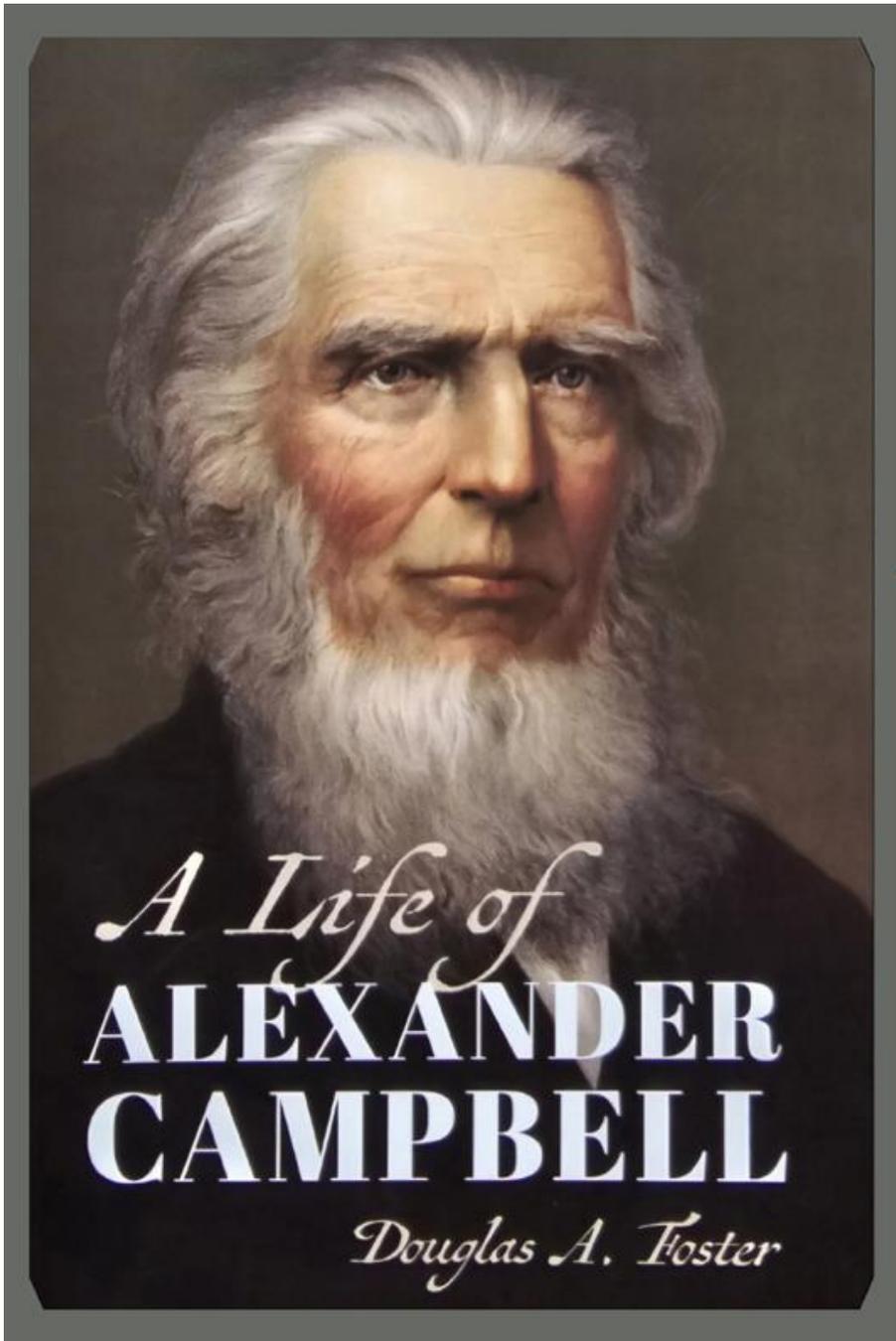
- 스톤-캠벨운동권의 한 지류인 **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에서의 최근 경향은 목회자들이 매년 또는 3년마다 새로 선출하는 장로/집사 선거 때 장로직에 출마하여 선출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장로에 선출된 목회자는 minister로 불리기보다 pastor로 불린다.
- **가톨릭교회, 성공회** 등에서는 목회자를 priest라 부르고, 장로교, 감리교 등에서는 pastor라 부른다. **미국 감리교**는 성공회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가톨릭교회와 마찬가지로 평신도 장로나 집사 제도가 없다.
- **목회자 사제(장로)에 평신도 장로대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생긴 교단이 장로교이다.** 장로교는 16세기 가톨릭 사제들이었던 스위스 및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들의 개혁주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그리스도의교회는 미국에서 제2차
대각성 운동 시기에 스톤-캠벨운동
으로 태어났다.



Second Great Awakening

Disciples of Christ, Christian Churches, Churches of Christ 는 제2차 대각성 운동 시기(1780-1840년)에 Stone-Campbell Movement으로 태어났다.



Ad Fontes

— BACK TO THE BASICS —

**To the Sources:
근원으로 돌아가자!**
- 르네상스시대 -

**To Restore the New Testament
Order of Things!
신약의 믿음과 실천을 회복하자!**
- 알렉산더 캠벨 -

종교개혁운동의 공과(功過)

- 교황과 사제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개인들에게 직접 (사제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만인사제의 의미)
-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성경과 라틴어 미사만 허용되던 시대에 모국어로 성경을 읽거나 특히 예배 중에 모국어로 읽어 주는 성경말씀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 하루 세 번씩 기도회로 성전제사를 대신하던 유대교기도회에 주의 만찬을 첨가하여 성전예배의 의미를 살린 것이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예배였다.

- 주의 만찬에 신앙의 신비(Mysterium fidei)를 추가하여 그리스도교 예배를 제사로, 집례자를 사제(제사장)로, 주의 만찬상을 제단으로, 떡과 포도주를 제물로, 떡과 포도주를 바치는 행위를 봉헌으로 유대교화시킨 것이 **가톨릭교회의 미사**이다.
- **츠빙글리**가 주의 만찬에서 신비(미신)만 뺀 것이 아니라, 매일 드리는 예배내용 그 자체였던 주의 만찬을 연 4회로 줄임으로써 그리스도교 예배를 기도회로 유대교화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개신교 역시 국가종교 혹은 시의회종교였기 때문이다.

- **루터** - 죄 용서, 죄의식에서의 자유, 하나님과의 화해, 은혜의 복음과 말씀 회복에 주력. 잊혀진 원시교회의 원형과 전통 회복(환원)에 적극 반대. 반면에 가톨릭 전통을 최대한 지켜 내면서 타락한 교회의 개혁을 추구함.
- **츠빙글리** - 원시교회의 질서(신약성경교회의 의식, 형식, 구조)를 회복(환원)코자 함. 신약성경의 침묵을 금지로 봄. 따라서 악기사용, 성화 및 성상 사용을 금함. 반면에 국가의 모든 사람들을 품는 국교와 교구제도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유아세례를 포기하지 못함. 성인 세례자들만을 교인으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함. 주의 만찬의 횃수를 연 4회로 줄임.

- 루터는 오르간 사용을 지지했지만, 츠빙글리와 칼뱅은 오르간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라며 반대하였다. 성상(아이콘)과 오르간 파괴가 동시에 이뤄졌다.
- 감리교회는 1780년 오르간을 금지시켰고, 1880년 런던의 City Road Chapel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 1866년 스코틀랜드 교회, 1872년 연합장로교회, 1883년 자유교회가 각각 오르간을 허락하였다.
- 그리스도의교회는 1850년대부터 악기논쟁이 불거져 무악기에배를 주장하는 교회들이 1906년에 갈라져 나갔다.
- 하인리히 불링거 – “교회는 주님과 사도들에 의해 전수되고 확립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붙잡아서는 안 되고 그것들을 변화시키지 말고 잘 유지해야 한다.”며 환원을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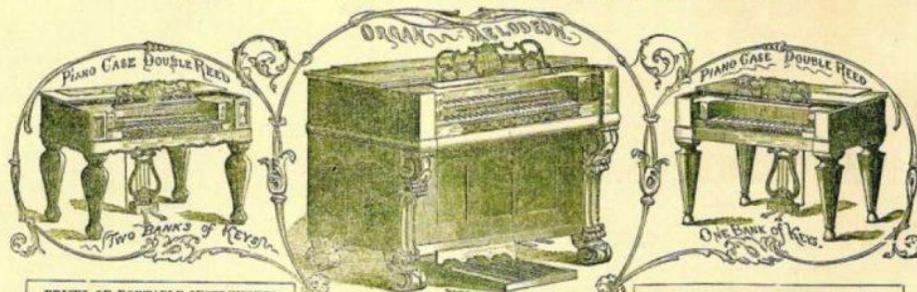
PRINCE & CO'S IMPROVED PATENT MELODEON

GEO. A. PRINCE & CO., MANUFACTURERS, BUFFALO, N. Y.

Wholesale Depot, 87 Fulton Street, New York.

Combining all of their recent Improvements--the Divided Swell, Organ Melodeon. &c.

(THE DIVIDED SWELL CAN ONLY BE OBTAINED IN MELODEONS OF OUR MANUFACTURE.)



PRICES OF PORTABLE INSTRUMENTS.

Four Octave, C to C.....	\$45
Four and a Half Octave, C to F.....	60
Five Octave, F to F.....	75
Five Octave, Double Reed, F to F.....	130

PRICES OF PIANO CASED.

Five Octave, F to F.....	\$100
Six Octave, F to F.....	130
Five Octave, Double Reed, F to F.....	150
do. do. Two Banks of Keys.....	200

ORGAN MELODEON.

Two Banks of Keys, Five Sets of Reeds, Eight Stops, One and a Half Octave Foot Pedals, One Set of Reeds in Pedal Bass Independent.....\$350



Wholesale Depot,
87 FULTON ST
NEW YORK.

Manufactory,
CORNER OF
Niagara & Maryland Sts.
BUFFALO.

Wholesale Agents,
RUSSELL & RICHARDSON,
Boston, Mass.

W. F. COLBURN,
Cincinnati, O.
BAYNE & WEBER,
St. Louis, Mo.
R. E. MOULD & CO.,
Chicago, Ill.
PH. P. WEBERLIN,
New Orleans.

The Oldest Establishment in the United States, employing 200 Men, and finishing 80 Instruments per Week.

All Melodeons of our manufacture, either sold by us or dealers in any part of the United States or Canada, are warranted to be perfect in every respect, and should any repairs be necessary before the expiration of one year from date of sale, we hold ourselves ready and willing to make the same free of charge, provided the injury is not caused by accident or design.

GEO. A. PRINCE & CO.

George A. Prince
Melodeons
멜로디온 판매
광고 (1865년경)

- **마르틴 부처** - 콘스탄티누스와 국교체제에서 그리스도인 황제들에 의해서 보호되고 감독되던 시대의 교회(국교)를 회복하고자 함. 미사를 주의 만찬(Lord's Supper), 사제를 감독(Pastor), 제단을 주의 만찬상(Holy Table)으로 바꿈.
- **칼뱅** - 츠빙글리와 루터의 중간쯤에서 믿음과 실천을 성경적 원천, 곧 원시 그리스도교의 본래적 순수함으로 되돌려 놓으려 함.
- 루터, 츠빙글리, 칼빈 등의 개혁가들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가톨릭 전통 반대, 교회의 본래성 추구, 모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리 회복, 국교와 교구제도 등을 추구함.
- 종교개혁가들은 자신들이 환원주의자들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교에 반대하는 분리주의자들(환원주의자들)을 중형 또는 사형으로 다스림.**



독일 Eifel의 재세례인 부인,
마리아 반 몬주를 익사시키는 장면

Maria van Monjou. 1552.



네덜란드의 귀족 부인 재세례인 마리아 반
베쿰과 올케 우르술라를 화형시키는 장면

Maria van Beckum, en Ursel, haers Broeders Wijf. 1544.

시의회에 체포되어 처형되는 재침례파들. **츠빙글리와 칼뱅은** 이들을 용납치 않았다. 츠빙글리, 칼뱅, 루터는 **국가종교의 틀**에 갇혀 있었고, 국가 또는 시의회는 주류 이외의 신앙운동을 사형으로 다스렸다. 가톨릭 뿐 아니라, 국가와 시의회 교회였던 **개신교에도 신앙의 자유가 없었다**(박해사례: 재침례파, 뮌스터공동체, 청교도).



카톨릭 사제에서
재침례인으로 개종한
메노 시몬스. 그의
이름을 딴 재침례인의 한
파가 Mennonites이다.
재침례신앙을 고백하는
교단으로는 메노나이트
외에도 Hutterites,
Brethren, Amish,
Quakers 등이 있다.



츠빙글리와 칼뱅은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정교분리를 주장한 재침례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였고, **시의회는** 이들을 익사(침례를 조롱할 목적), 화형 등으로 처형하였다. 그러나 성속 분리 평화주의자들이자 무저항주의자들이었던 재침례인들은 그 어떤 저항이나 반항도 하지 않았다.

메리 튜더의 영국 개신교 탄압

- **헨리8세** -1509-1547.1.28 재위. 1534년 **수장령** 발표.
- **에드워드 6세** - 1547-1553년 재위, 미사와 가톨릭 의식 폐지, 아이콘과 성상 제거, 설교 장려, 영어성경 사용 권장, 토머스 크랜머의 <기도서>(1549) 승인.
- **메리 튜더** - 1553-1558년 재위. 300여명의 개신교인들을 화형에 처함으로써 “피의 메리”(Bloody Mary)라 불림. 난소암으로 사망.
- **엘리자베스 1세** - 1558-1603.3.24 재위. 44년간 통치 후 70세에 사망. 1559년 종교타협(가톨릭 Orders와 개신교 Confession of Faith의 혼합으로 영국교회 탄생). 새로운 <기도서> 승인. 청교도 및 분리주의자들 탄압.

메리 튜더의 영국 개신교 탄압

캔터베리 대주교
신학박사 토마스
크랜머가 화형에
처해지는 장면
(1556년 옥스포드).
그는 여러 번
배교하고 번복할
때 서명했던 손을
가장 먼저 불 속에
넣었다.



메리 튜더의 영국 개신교 탄압

니콜라스 리들리 주교와
휴 래티머 신부가 화형에
처해지는 장면(1555년
옥스포드). 불길이 치솟자
래티머가 주교 리들리에게
말하였다. “리들리 주교님,
남자답게 처신 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에서 촛불처럼
빛을 발할 것이며, 그 불을
절코 끌 수 없을 것입니다.”

A table describing the burning of Bishop Ridley and Father Latimer at Oxford, D. Smith there preaching at the time of their martirdome.



메리 튜더의 영국 개신교 탄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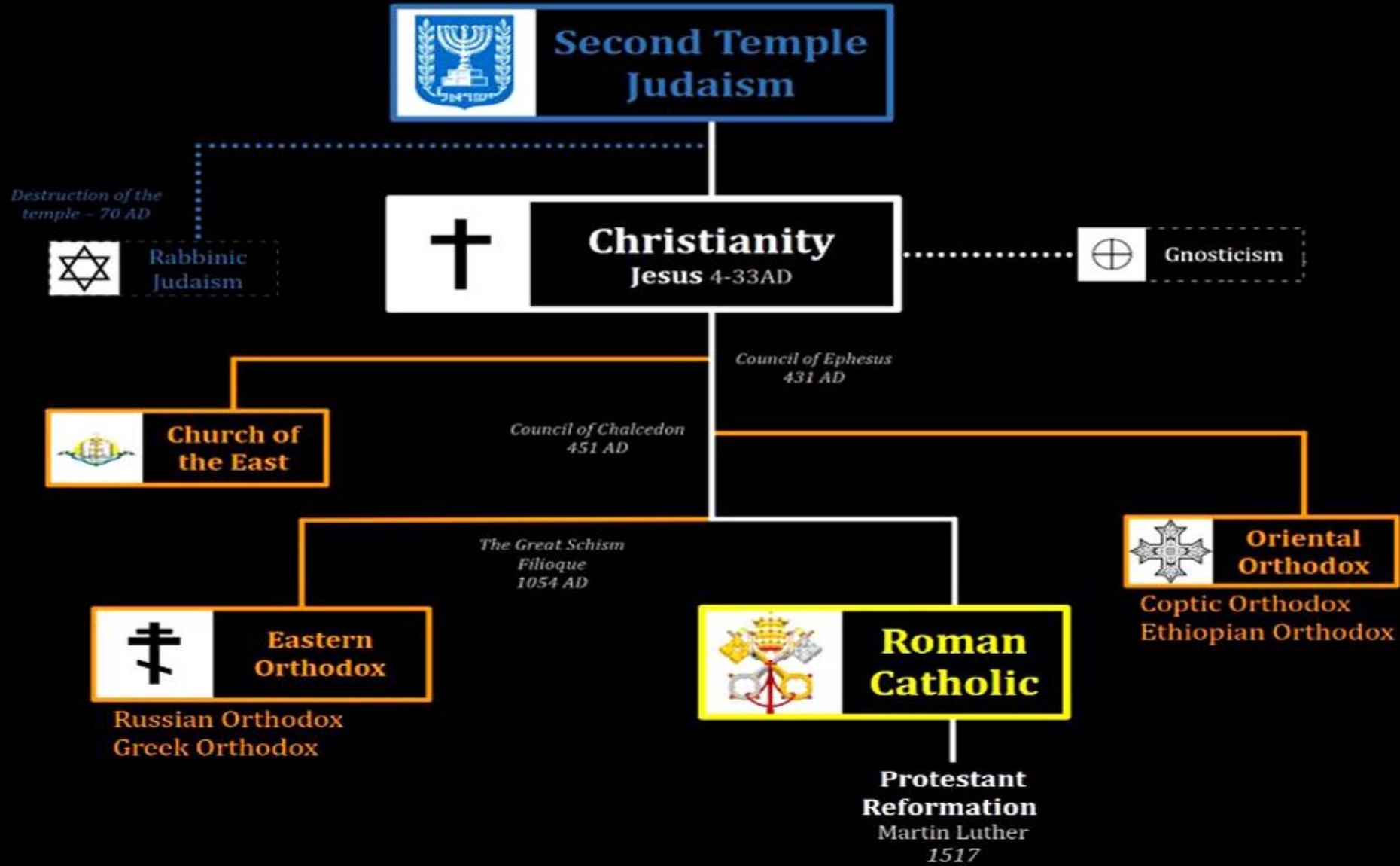
존 후퍼가 화형에
처해지는 장면
(1555년 2월 9일,
글로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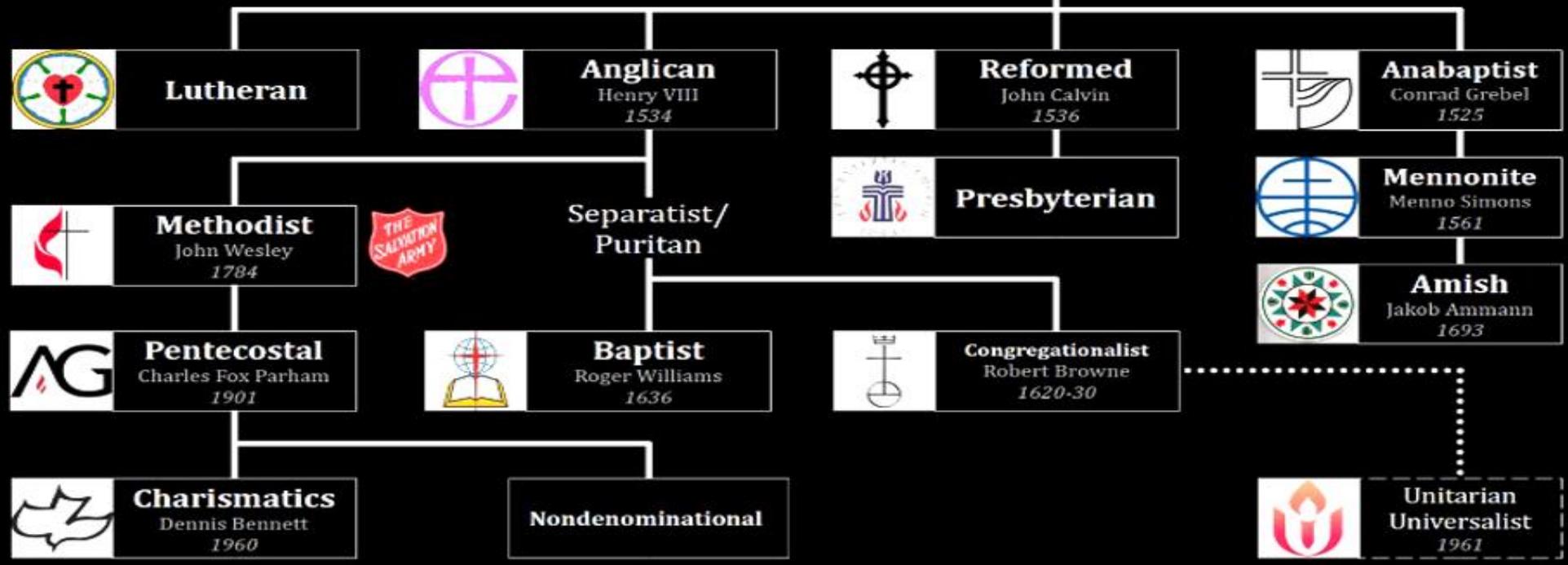
엘리자베스 1세(영국교회)의 청교도 박해 및 청교도 미국 이주

- 1560년부터 분리주의자 청교도들은 영국교회로부터 60년간 탄압을 받다가 1620년에 미국으로 이주(102명), 1630년(400명+), 1640년(2만명).
- 인위적 예배와 고안물로부터 해방된 본래적 단순함이 회복된 원시교회(회중교회)를 추구.
- 교회와 사회의 법이 성경(모세율법에 큰 비중을 둠)의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성경적 공화국 New England(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메인, 뉴햄프셔 6개 주로 이루어진 지역)를 건설코자 함. 율법적 자만심으로 이어짐. *신약성경교회와 구분 됨.
- 종교의 자유로 미국에서 신흥 교파들 발흥 - 1791년 12월 15일에 채택된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1조에 국교수립을 금지하고, 종교의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부에 대한 청원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Denomination Family Tree



Protestant Reformation
Martin Luther
1517



Second Great Awakening
1790-18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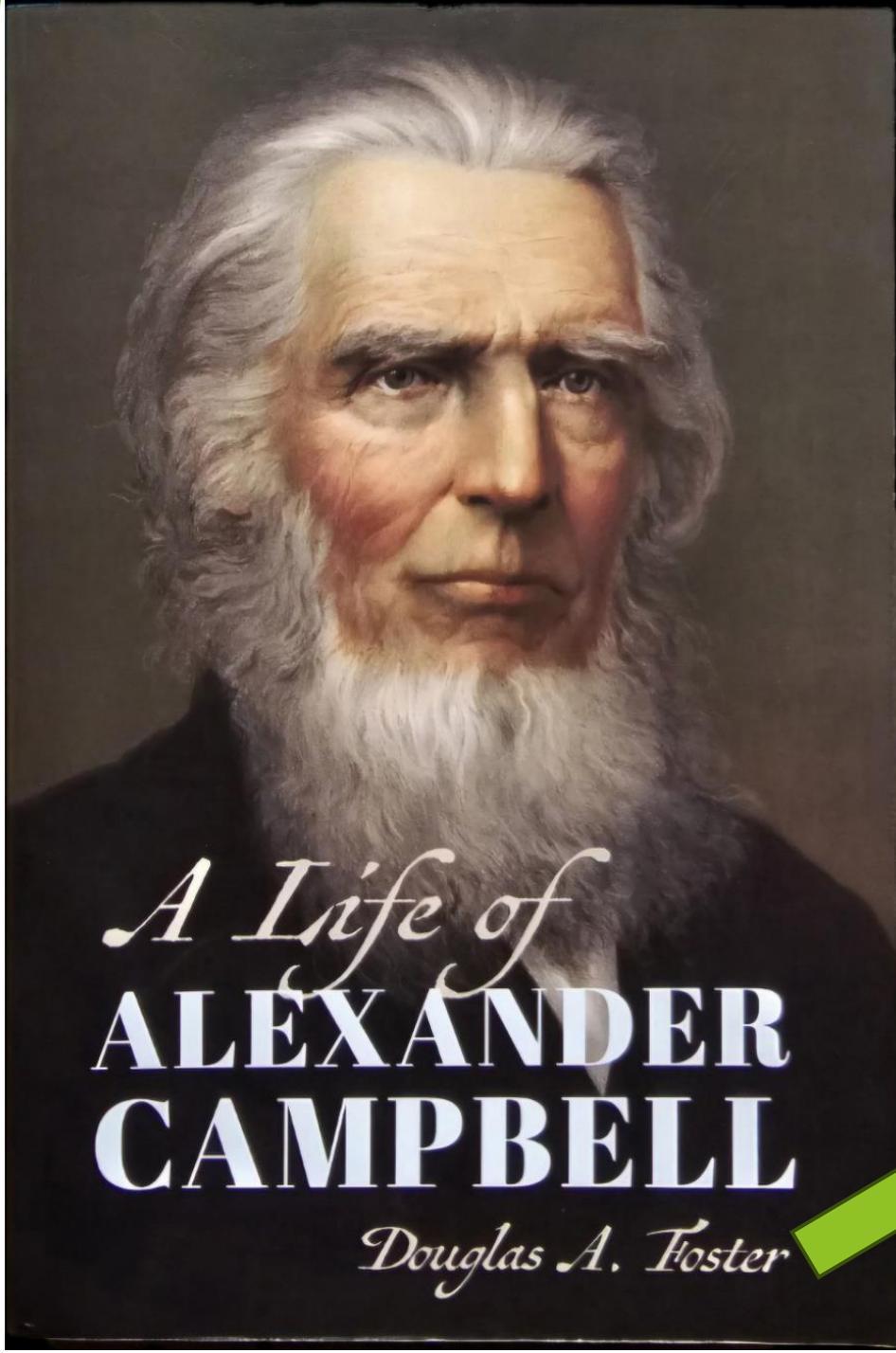
그리스도교 분열과 교단세력화

- **삼위일체와 단일신론의 경쟁과 분열.** 325년 삼위일체를 지지하는 '니케아신조'를 시작으로 다수의 삼위일체 신조들 양산.
- 테오도시우스, 암브로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가 생존했던 **392년 그리스도교가 제국종교**가 되면서 예전신학, 봉헌(제사)신학, 성체신학이 급격히 발전.
- 개교회 목양자와 감독들이었던 **장로들이 사제로 둔갑되어 계급화** 됨(부제=집사, 사제=장로,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 혹은 총대주교).
- 박해시대가 끝난 4세기 초 이후 **금욕과 고행을 통한 개인경건과 신비주의 및 수도원운동**으로 이어지는 암흑시대란 터널을 통과.
- 16세기 초 **종교개혁의 성공**으로 성경을 모국어로 읽게 된 개신교회들은 **일치보다는 진리와 순수성에 경도되어 교파들을 양산.**

- 교파별로 성경해석에 따른 **신조(교리)**들을 쏟아내면서 자기 울타리를 강화.
- 17세기 이후 신비주의 및 경건주의운동이 나타남.
- 유럽 교회들이 경쟁적으로 신대륙으로 진출하여 교파교회들을 이식.
- 18세기에 대각성운동 시기에 옛 빛파와 새 빛파로 분열. 기적, 동정녀 탄생, 부활 등을 부인하는 **계몽주의, 이신론** 등장.
- 19세기에 미국산 교파들 다수 탄생. **세속주의** 곧 **무신론, 진화론, 공리주의, 실용주의** 등장.
- 20세기에 **합리주의** 영향으로 모든 교단들에서 성경관을 중심으로 **근본주의(축자영감설), 복음주의(개념영감설), 진보주의(신앙고백설)**로 분열.

알렉산더 캠벨 대對 나단 라이스

Campbell versus Nathan L. Rice



제13장 캠벨 대 장로교 - 두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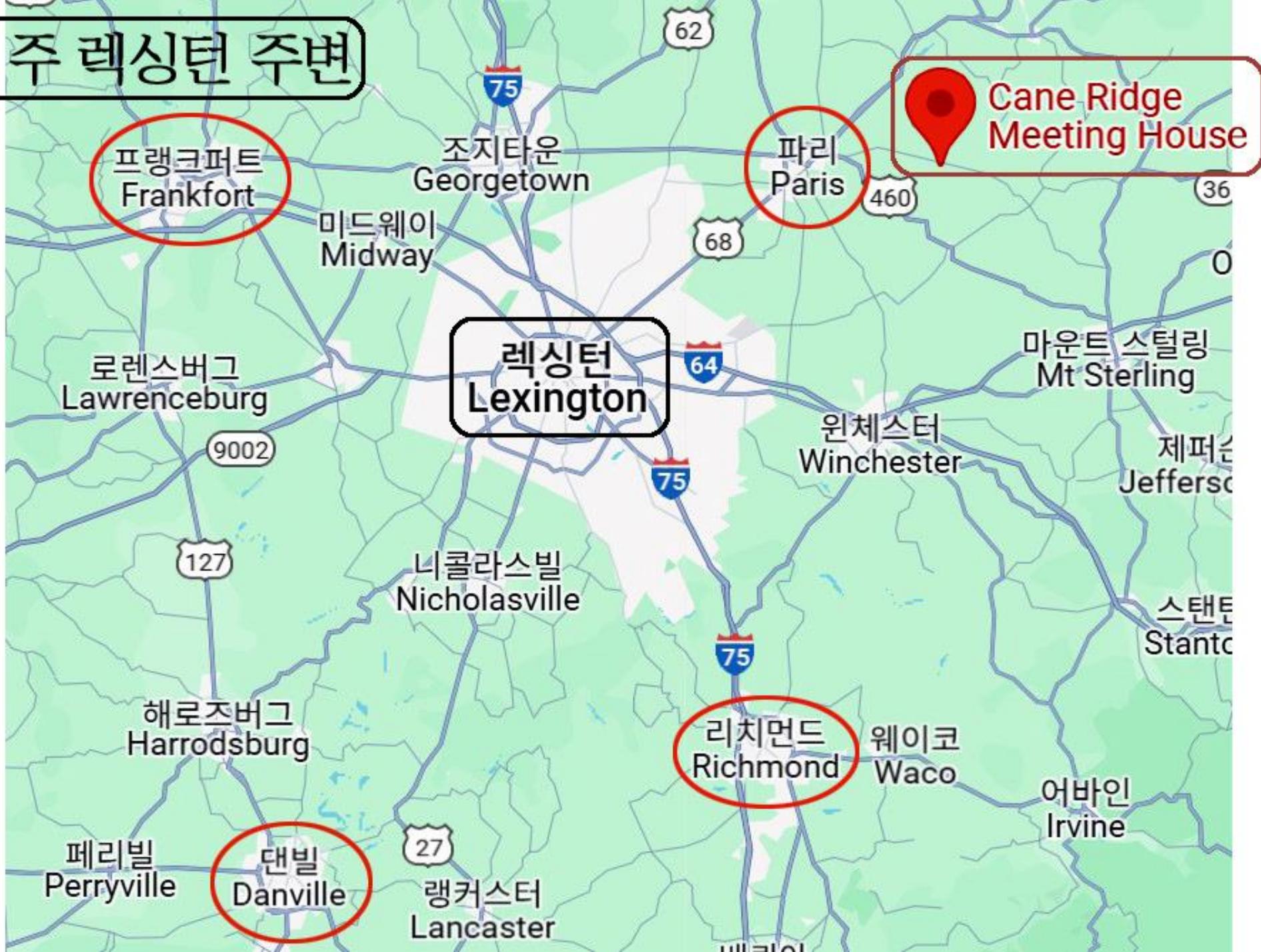
A Life of Alexander Campbell

by Douglas A. Foster, Abilene Christian University

-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의 마지막 공개 토론은 오웬(Owen)과 퍼셀(Purcell)의 예법을 갖춘 토론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그 두 토론상대 중 어느 누구도 캠벨의 동기나 지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캠벨이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거친 언사를 하도록 자극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단 L. 라이스(Nathan L. Rice)**와의 토론은 두 논쟁자 모두 개인적인 공격과 부정직에 대한 암시로 가득했다.

- 1830년대에 캠벨의 개혁운동은 켄터키 주에서 장로교에 대한 강력한 경쟁자임이 입증되었다.
- 1842년 8월 켄터키 주와 오하이오 주 순회전도를 보고하면서 캠벨은 프랭크포트(Frankfort)와 렉싱턴(Lexington)에 있는 교회들이 큰 예배당들을 짓고 있었으며 침례 숫자가 상당했다고 말하였다. 그가 도착하기 전 두 달 동안 렉싱턴 지역에서는 침례 숫자가 천 명이 넘었고 렉싱턴 남서쪽의 그린 강(Green River) 지역에서도 350명이 넘었다. 심지어 장로교의 거점이자 장로교 중앙 대학(Presbyterian Centre College)의 소재지인 댄빌(Danville)에서조차 최근에 침례 받은 숫자가 40-50명이라고 캠벨은 보고하였다.

켄터키 주 렉싱턴 주변



Cane Ridge Meeting House

렉싱턴
Lexington

켄터키
기독교
대학교

- **순회전도에 관한 두 번째 기사**에서 캠벨은 켄터키 주 바드스 타운(Bardstown)을 통과한 이야기에서 **장로교 목사 나단 라이스**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 2년 전에 그 도시의 그리스도의교회 목사가 캠벨에게 **라이스가 스톤-캠벨의 개혁운동을 심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알렸다. 캠벨은 당시 라이스의 공격에 대응할 생각이었지만,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 기사 후반부에서 캠벨은 **라이스가 켄터키 주 파리(Paris)에서 개혁가 에일렛 레인스(Aylette Rains)와 침례에 관해 토론하기로 했지만, 물러섰다는 소문을 반복해 전하면서 라이스가 이길 수 없을 까 봐 두려워했다고** 넌지시 말하였다. **캠벨은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격렬한 토론을 라이스와 펼치게 될 줄을 전혀 몰랐다.**

- 그 토론은 캠벨이 **켄터키 주 리치먼드(Richmond)**를 방문했을 때 시작되었다. 그곳의 장로교 목사인 **존 H. 브라운(John H. Brown)**이 캠벨에게 접근하여 캠벨의 개혁과 장로교 사이의 교리적 차이점들을 놓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 캠벨은 처음에 자신의 운동을 이끈 켄터키 지도자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브라운이 오직 캠벨의 말만이 그 개혁에 관한 온전한 의미를 전달할 것이라고 반박**하자 캠벨은 그 문제를 추진하기로 동의하였다. 캠벨은 브라운에게 말하기를 공식적인 제안서를 작성하여 자신에게 보내면, 자신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간 후에 답장하겠다고 하였다.

- 브라운은 즉시 제안서를 작성하여 9월 19일에 캠벨에게 보냈다. 두 사람이 이미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브라운은 11월에 만나 토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각 측에서 2~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였다. 브라운은 캠벨에게 개혁 측 위원들의 이름을 보내 주고 토론 날짜도 제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브라운은 양측이 공개하기로 합의할 때까지 그들의 서신왕래가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캠벨은 브라운한테서 더 일찍 소식이 올 것으로 기대했으며, 토론의 내용을 결정지을 책임을 위원회에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답장하였다. 그런 다음 캠벨은 브라운이 자신의 토론 상대가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다섯 가지 명제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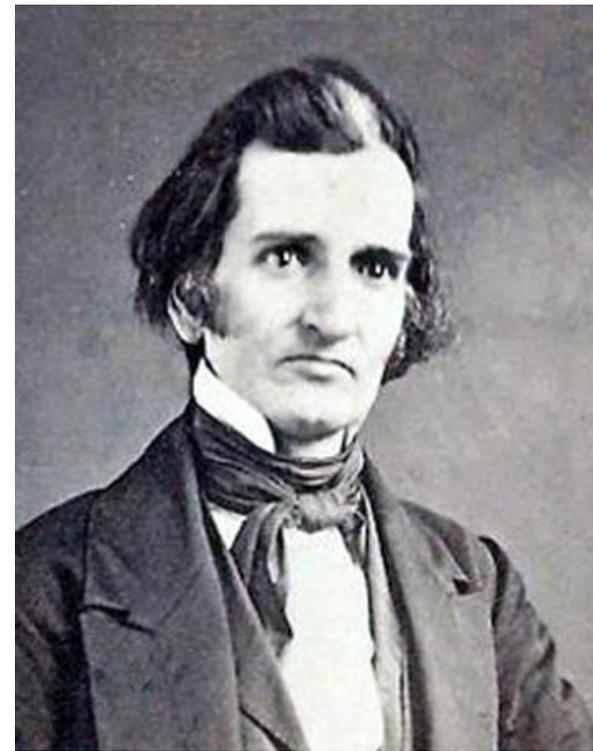
- 세 가지는 세례에 초점을 맞추었다. 유아 세례와 약식 세례가 합법적인지, 침(세)례가 죄 사함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 나머지 두 가지는 장로회 조직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교리가 신약성경에서 발견되는지 여부를 다루었다. 이로써 11개월간의 다툼이 시작되었다. 그 다툼은 초기 대화에서 누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 누가 장로교 측 위원회에서 활동할 것인지, 토론자를 양측에서 한 명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 그룹씩으로 할 것인지, 노회가 장로교 측 토론자들을 공식적으로 임명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토론할 정확한 요점도 큰 문제가 되어 캠벨과 브라운은 미묘하게 수정하고 바꾸기를 반복하였다.

- 캠벨은 나중에 브라운이 자신에게 확인하기를, 브라운은 그 말을 부인하였지만, 만약 한 명의 장로교 토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캠벨이 크게 존경하는 '중앙대학'(Centre College) 학장인 존 C. 영(John C. Young)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였다.
- 영(Young)의 건강 악화로 이 옵션이 무산되고 캠벨이 받아들일 수 있는 두 번째 인물인 J. R. 브레킨리지(J. R. Breckinridge)가 캠벨이 이전 토론들에서 그리스도교와 개신교를 성공적으로 옹호한 인물이었다는 이유로 캠벨과의 토론을 거부하자, 브라운은 장로교 대표로 나단 라이스(Nathan Rice)를 지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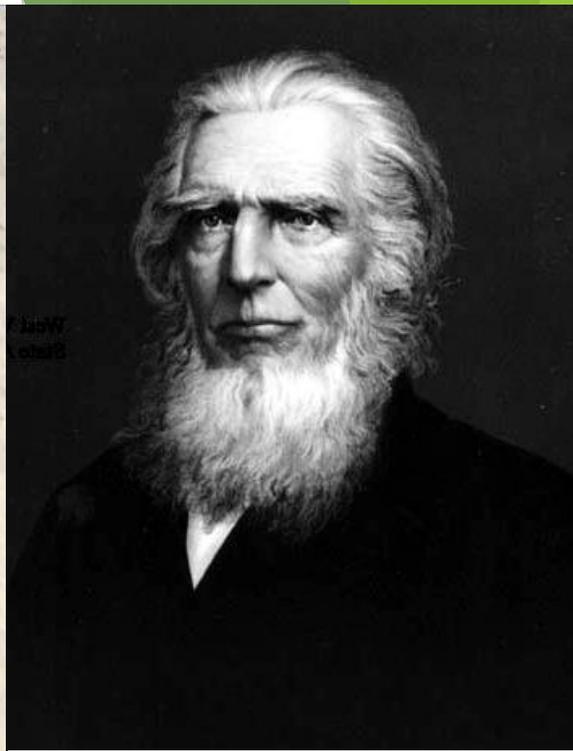
- 이에 캠벨은 토론대회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고 위협하였다. 캠벨은 처음부터 라이스를 자신의 상대로 내세울 의도였다며 브라운과 노회의 정직하지 못함을 비난하였다. 캠벨의 답변은 장로교인들 사이에서 캠벨이 토론에서 물러서고 있다는 소문을 불러일으켰고, 캠벨은 5월에 인쇄된 기사에서 이를 강력히 부인하였다.
- 두 위원회는 마침내 8월 초 켄터키 주 렉싱턴에서 회의를 열어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적대감이 너무 커져서 그들이 모두 도착한 후에도 양 그룹은 6일 동안이나 만남을 거부하였다.

- 대신에 그들은 8월 7일까지 주자들이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마침내 한 자리에 모였다. 브라운은 캠벨에게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서신 전체를 즉시 공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캠벨은 거절하였다. 토론의 내용이 책으로 발간된 후에야 그 길고도 격렬한 과정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 1843년 2월, 브라운과의 서신을 주고받는 와중에 나단 라이스(Nathan Rice)는 캠벨이 전년 11월 <새천년시대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지에 실은 보고에서 행한 비판적 발언에 대해 답하였다. 캠벨은 라이스의 편지를 공개하고 더욱 비하하는 발언으로 답하였다.

- 캠벨은 선언하기를, 자신이 항상 논쟁의 여지가 있는 신념에 대해 공개적이고 정중한 토론을 장려해왔고, 자신이 비난했던 것은 “**자신의 오류와 교파에 맹세한 편견에 사로잡힌 종파주의자의 무례하고 무자비한 공격**”에 대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 이것은 라이스의 무례함이었지 라이스와 개혁자들 사이의 차이점들이 아니었다.
- **캠벨의 경력 중 마지막 공식 토론은 캠벨과 존 브라운 목사 사이에 점증적이고 비우호적인 서신왕래와 라이스와의 적대적인 편집자 교류 속에서 극도로 다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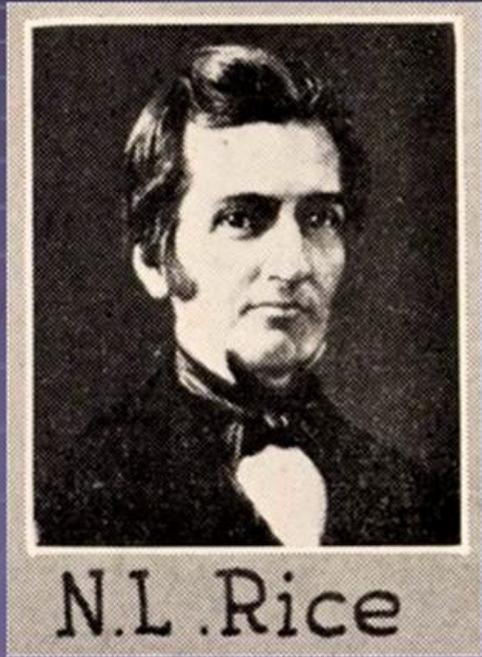
나단 루이스 라이스
1807-1877



알렉산더 캠벨
1788-1866

캠벨-라이스 토론의 도판(圖版). 텍사스 주 애빌린 소재 애빌린 크리스천 대학교 환원 연구 센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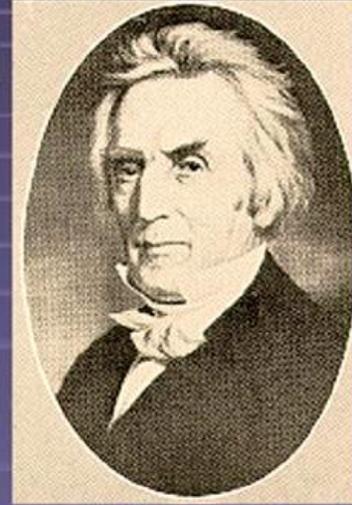
1843 Campbell-Rice Debate, Campbell's Last Public Debate Lasted Sixteen Days



N.L. Rice
1843 - 36
Years Old



Main Street Christian Church
Erected, 1841



1843 - 55
Years Old

A Debate Between Rev. A. Campbell and Rev. N. L. Rice

On the Action, Subject, Design and
Administrator of Christian Baptism;
Also, On the Character of Spiritual
Influence in Conversion and
Sanctification, and On the Expediency
and Tendency of Ecclesiasti



NATHAN LEWIS RICE, MARCUS TULLIUS
CICERO GOULD, ALEXANDER CAMPBELL, A
EUCLID DRAPIER

알렉산더 캠벨 대궐 나단 라이스 공개토론이 1843년 11월 15일(수)부터 12월 2일(토)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렉싱턴 소재 Main Street Christian Church에서 16일간 진행되었다. 그리고 현장에서 속기된 공개토론 내용은 책(902쪽)으로 출판되었다. 당시 캠벨은 55세, 라이스는 36세였다.

- 1843년 9월호 <새천년시대 선구자> (Millennial Harbinger)
지는 최종 세부 사항을 발표하였다.

● 그 토론은 켄터키 주 렉싱턴에 있는 개혁 교회에서 11월 15일부터 열릴 것이다. 여섯 가지 명제가 토론 될 것이다. 처음 네 가지는 침(세)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신자들의 침수세례가 유일하게 유효한 형태인지, 유아 세례가 성경적인지, 침(세)례가 죄 사함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오직 안수 받은 감독들이나 장로들만이 침(세)례를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두 가지 명제는 회심과 성화에서 성령의 역할과 신조의 합법성이 검토될 것이다.

- 토론은 11월 15일 수요일에 시작되어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2월 2일 토요일까지 계속되었다.
- 캠벨은 처음에 10일 또는 11일 동안 하루에 6시간씩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라이스가 하루에 4시간만 할 수 있다고 말하자 캠벨은 며칠을 더 연장하는 데 동의하였다.
- 침(세)례를 둘러싼 질문이 토론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최종 출판된 책은 작은 활자로 인쇄됐는데도 912쪽에 달했고, 그 가운데 562쪽이 침(세)례에 관한 것이었다.
- 14개월 걸린 기획 기간에 쌓인 증오심은 토론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 캠벨은 첫 연설에서 많은 사람들이 토론의 주제들이 침(세)례 때 작은 물그릇을 사용할 것인지 큰 물그릇을 사용할 것인지와 같은 사소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말하였다.
- 그러나 캠벨은 이 문제가 미국, 유럽, 세계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 가톨릭교회는 유아세례의식을 통해 수억 명의 신자를 추가하고 있었다.
- 개신교 종교개혁은 16세기에 그 권력과 폭정에 도전했지만 정부들의 호의에 속아 거짓된 의식을 계속하고 있었다.

국가종교는 정치(바빌론, 로마)에 종교가 볼모 잡힌 꼴

● 그는 가장 권위 있는 자료들을 통해 침례가 신자들의 침수 세례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고, 헬라이어단어 **뱁티조(baptizo)**에 대한 광범위한 설명을 시작하였다.

● 그는 또한 청중들에게 토론을 원했던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장로교인들이었다는 점을 상기 시켰는데, 이 사실이 그를 짜증나게 하고, 이 사건 전체에 대한 그의 분노를 더욱 키운 것 같았다.



A prospective Orthodox convert, LaFianza, 34, is still waiting for the all-clear from the local rabbinical court affiliated with the Rabbinical Council of America so she and her family can immerse in the mikvah, or Jewish ritual bath, and formally become Jews. 유대교의 침례는 알몸 상태로 물 속에 들어간다. 2-3세기경 그리스도교의 침례도 알몸으로 물 속에 들어갔다.

- **라이스는** 자신의 견해가 과거와 현재의 셀 수 없이 많은 현명한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답하였다.

● 신자들의 침수세례가 유일하게 유효한 침(세)례라는 캠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캠벨이 방금 칭찬한 위대한 개신교 개혁자들은 “그리스도교 체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 중 하나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똑같이 침례를 받지 않았으며, 그리스도교의 이방인들이었다. 아니, 이 교리가 사실이라면, ‘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어 매우 행복했던’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지상에 참된 교회가 없다!”

- 라이스는 자신이 토론을 요구한 데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존 브라운(John Brown)과 캠벨 사이에 오간 서신을 인용하여 ‘캠벨파’ 개혁가인 던컨(Duncan) 씨가 주도자였음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라이스는 반대 입장을 취한 권위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성경이 신자들의 침수세례 교리에 대해 절대적으로 명확하다는 캠벨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그가[캠벨이] 주장하기를,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져서, 어리석음이나 비뚤어짐 외에는 아무것도 그것이 발전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가 전적으로 실수했거나, 내가 말한 수많은 명백히 현명하고 선한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비뚤어지게 반항적이거나 가장 심하게 어리석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 아이러니하게도, **라이스의 말은** 신자들의 침수세례가 유일하게 유효한 침례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 **토마스 캠벨이 초기에 품었던 우려**를 떠올리게 하였다.
- 그는 침수세례가 “**정식적이고 정해진 방식**”일 수 있지만,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을 “**단지 다시 입교시킬 목적만으로 교회 밖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
- 알렉산더 자신도 **1837년 루넨버그 서신(Lunenburg letter)**에서 비슷한 지적을 한 바가 있다.

- “따라서 나는 어느 한 의무를 그리스도인의 상태나 특성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심지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수 세례를 받는 것조차도, 또 내 마음으로는 유아기에 자신의 지식과 동의 없이 약식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한 확고한 희망에서 제외된다고 간주할 수 없다.”
- 그리고 나서 라이스(Rice)는 캠벨(Campbell)이 앞서 사용했던 동일한 사전들을 인용하여 ‘침례’로 번역된 헬라어 어근이 오로지 침수만을 의미하지 않는 용례들을 찾아 제시하였다.

βαπτίζω

baptizō / baptize

- 여러 면에서 캠벨이 라이스와의 논쟁에서 침례에 관해 한 주장들은 그의 가장 발전된 이해와 가르침을 나타낸다.
- 13년 전인 1830년 7월에 캠벨은 “죄 사함”에 관해서 〈새천년 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지의 ‘별책’을 발행한 바가 있다. 그 별책에 실린 10개의 명제들 중 마지막에서 캠벨은 주장하기를 “침수세례와 중생은 같은 행위에 대한 두 가지 성경의 명칭이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캠벨이 침례 중생(baptismal regeneration)을 가르쳤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끼얹었는데, 침례 중생은 장로교도들과 침례교도들이 모두 배척한 견해였다.

- 라이스와의 토론은 침례 중생에 대한 그의 이해를 설명하는 등 그의 성숙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
- 라이스는 캠벨이 그의 개회사에서 **침수세례가 구원에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불평하였다. 본질적으로 그는 캠벨이 **침례 중생**이나 매한가지인 자신의 진정한 신념을 경시했다고 비난하였다. 그런 다음 라이스는 캠벨의 글들을 인용하였는데, 여기에는 <크리스천 뱅티스트>(Christian Baptist)지에 실린 기사와 <회복된 그리스도교>(Christianity Restored)에 실린 구절이 포함되었다. 캠벨은 이 구절에서 **침례를 “물속의 복음”**이라고 기술하였고, **침례의 행위를 정죄와 구원 사이의 경계선**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 그러나 **캠벨은 자신이 침례가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을 부인하였다.**
- 그는 회개하는 신자가 침례가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침례를 구원에 절대적 본질로 삼지 않는다”(519).
- 라이스는 캠벨이 일부 사람들이 침수세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수긍한 것은 그가 어떤 성인도 회개와 침수세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인쇄물을 통해 말한 것과 모순된다고 반박하였다.

- 오후 2시에 시간이 다 되었을 때, 논쟁자들은 이 진술에 대한 논쟁이 너무 중요해서 지연시킬 수 없다는 데 동의하였다. 그들은 11월 24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론을 재개하였다. 그때에도 시간 때문에 사회자들이 두 사람 모두를 중단시켜야 했다.
- 캠벨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장하기를 **자신의 입장이 침례에 대한 “보편적인”(catholic) 견해**라고 하였다. **모든 사람이** 침수세례가 유효한 침(세)례라는 데 동의했지만, **모든 사람이** 뿌리거나 붓는 세례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한 신자들이 침례 받기에 적절한 대상들이라는 데 동의했지만, **많은 사람이** 유아가 침례 받기에 적절한 대상이라는 생각을 거절하였다.

- 마지막으로 캠벨은 고집하기를 침(세)례의 목적에 대한 각각의 개념에는 일부 신봉자들이 있지만, 그가 주장하기를 “전 세계”, 즉 “그리스인, 로마인, 그리고 모든 사람”이 침(세)례가 “죄 사함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다는 일종의 서약”이라는 믿음에 연합되어 있다고 하였다.
- 다른 견해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파적인 것이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종파적인 것을 희생하고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수세례로 연합하지 않겠는가?” (560).
- 아이러니하게도, 라이스는 침(세)례의 적절한 집례자에 대한 네 번째 명제에서 이와 동일한 논리를 사용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안수 받은 주교들이나 장로들이 침(세)례의 적절한 집례자들이라는 데 동의할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평신도가 집례자들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575).

- **빌 험블(Bill Humble)**은 제안하기를 **캠벨과 라이스의 진짜 차이점은 캠벨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요와 원칙을 제시한 반면 라이스는 단순히 캠벨의 광범위한 진술들에 대한 예외들을 찾았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 이러한 해석에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험블의 요점은 캠벨이 라이스의 주장에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고 토론 중에 그렇게 짜증을 냈는지를 설명하는 것** 같다.
- 종종 극도로 적대적인 공개 토론 언어에서 **캠벨과 라이스는 모두 상대방의 정직성과 성실성을 의문시하는 데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였다.

- **라이스는 캠벨의 글들을 광범위하게 인용하여 캠벨이 자기모순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캠벨은 인정하기를 자신이 전에 쓴 글들을 읽은 지 수 년이 되었고, 어떤 주제에 대해 글을 쓸 때마다 자신이 이전에 말한 내용을 확인할 의무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였다. **“본인은 실제적이든 명백한 것이든 모순을 막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하지만 캠벨은 계속하기를 그리스도교 종교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원칙들이 자신의 마음에 매우 굳건해서 결코 모순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캠벨은 항상 가장 명확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벨은 토론에서 자신이 표현한 입장들이 확실하고 보편적인 것들이라고 강경하게 주장하였다(643).

- 11월 27일 월요일 아침, 주제는 **침(세)례에서 회심에서의 성령의 사역(事役)**으로 옮겨갔다.
- **캠벨**은 성령이 회심에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역사(役事)하신다고 확인하였다. **라이스**는 성령이 보통 ‘진리’와 함께 역사하지만 다른 방식들로도 역사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 **라이스**는 캠벨의 첫 연설에 대한 답변에서 그가 실제 명제와 아무 관련이 없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웅변적인 담론을 펼쳤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그는 캠벨이 회심에 관한 유일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배타적이고 종파적인 주장을 했는데, 이는 “복음의 영보다는 로마의 교만”(625)처럼 들렸다고 비난하였다(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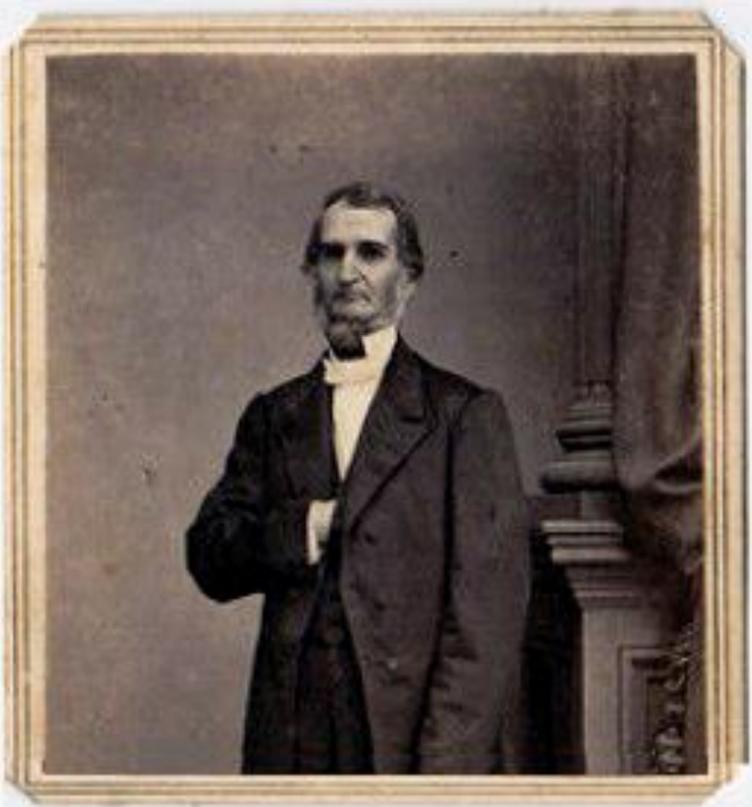
- 캠벨은 답변에서 자신이 첫 번째 연설에서 번호를 매기고 명확히 밝힌 주장들에 대한 답변을 라이스가 거부한 것에 대해 화를 내며 비난하였다.
- 라이스는 캠벨이 당시 논쟁 중이던 쟁점이나 라이스와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였는데, 이는 터무니 없는 것이었다.
- “내가 명제를 읽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은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회심과 성화 안에서 역사(役事)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나는 엄숙하게 나의 믿음으로 확인합니다. 이것을 라이스는 부인합니다”(640).

- **캠벨은 주장하기를 라이스가 자신의 주장들에 대해 답변을 피한 이유는 그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즉 라이스에게는 캠벨이 주장한 요점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응수할 답변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캠벨은 라이스가 선정적인(ad captandum) 주장들 곧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여 속기 쉬운 청중을 사로잡기 위해 고안된 건전치 못하고 겉만 번주그레한 웅변술을 사용했다고 비난하였다.**
- **게다가 캠벨은 “라이스가 확인자로든 응답자로든 성경을 고수(固守)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 그리고 나서 캠벨은 그 모든 건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였다.
- 캠벨은 상당한 희생을 치르고 왔다고 말하며, 공정한 의견 교환을 기대하였다.
- 하지만 캠벨은 라이스와 장로교도들이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캠벨과 싸워 “영광스런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 그는 자신의 상대방을 이기고자 하는 욕망이 그런 상황들에서 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여기서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거나 목격한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 캠벨은 상대방들이 라이스를 격려하고 청중의 생각을 조작하기 위해 **발코니에 ‘웃음 위원회’를 배치했다고 비난**하였다. 반면에 나는 이기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진실을 옹호하기 위해** 왔다고 캠벨은 날카롭게 되받아쳤다(641-42).
- 라이스는 “캠벨 씨는 나를 중재할 수 없습니다.”라고 반박하며 토론 진행자들에게 그가 합의된 규칙을 준수했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라이스는 **캠벨이 자신을 부정직하다고 비난함으로써 일반적 인 예의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비난**하였다.

- **라이스**는 캠벨이 사용한 용어들인 “혀의 방자함”과 “비열한 비방”을 포함하여 명예훼손 사례들을 나열하기 시작하였다.
- **캠벨**은 말을 가로채서, 자신이 그 같은 용어들을 사용했을 때는 라이스를 묘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라이스가 인용하고 있었던 출처들을 향한 것이었다고** 말하였다.
- **진행자 중 한 명**은 자신도 그 묘사들이 라이스 개인에게가 아니라 인용된 저자들에 대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데 동의하였다.



Rev Nathan Lewis Rice

BIRTH

29 Dec 1807

Garrard County, Kentucky, USA

DEATH

11 Jun 1877 (aged 69)

Chatham, Bracken County, Kentucky, USA

BURIAL

Hillcrest Cemetery

Fulton, Callaway County, Missouri, USA

Presbyterian minister from Paris, Kentucky who debated Alexander Campbell at the Main Street Christian Church, Lexington, KY. The debate lasted sixteen days, beginning November 15, and concluded on December 2, 1843. The basic issues were Christian baptism, the spiritual influence on conversion, and ecclesiastic creeds. Statesman Henry Clay moderated for Alexander Campbell.

- 그러나 라이스는 그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자신은 단지 두 명의 작가만 인용했고 캠벨의 비난은 분명히 자신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말하였다.
- “캠벨 씨처럼 토론에 익숙하고, 냉정함과 침착함이 뛰어난 사람이, 청중이 그의 마지막 연설에서 목격했듯이, 그렇게 많은 화를 낼 때에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슬픈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논쟁에서 성공하면 보통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곤경에 처한 유일한 원인이 내가 너무 요점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전개한 모든 주장은 토론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645).

- 그런 다음 그는 캠벨이 지정된 주제에서 벗어났다는 예를 인용한 다음, 캠벨의 성령에 대한 일곱 가지 요점들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였다.
- 라이스는, 비록 캠벨이 매긴 번호들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러한 주장들을 제시했다고 말하였다.
- 그리고 더 나아가 장로교도들은 대중의 생각을 조작하고 있지 않았다고 라이스는 외쳤다.
- 반면에 그가 제시한 주장들은 대중에게 자신의 입장들의 참됨과 캠벨의 입장들의 약점을 설득하기에 충분히 강력하다고 말하였다.

- **라이스(Rice)**가 몇 분 일찍 연설을 마쳤을 때 캠벨은 사회자들에게 **응답자가 주장자의 요점에 답해야 한다는 규칙을 시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 두 명의 사회자들이 말하였다.
- 첫 번째 사회자는 응답자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그들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사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는 제시된 자료가 그 명제에 관련이 없거나 부적절한지 여부였다.
- **캠벨은 “응답자가 주장자가 제시한 문제에 어떤 식으로든 답하는 것이 일반적이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 첫 번째 사회자는 그렇다고 했지만, 두 번째 사회자가 일어나 토론자들과 청중에게 연설하였다.
- 토론에서 상대방들은 여러 번 선한 질서의 경계들을 “거의 났을 뻔”했었다.
- 그는 두 사람에게 상대방의 성격에 대한 모든 진술들을 피하라고 강력히 권고하였다.
- 첫 번째 사회자는 명제들에 엄격히 집중하고 다른 토론자의 결함들이 아닌 전거(典據)들과 주장만 토론에 도입(導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651).

- 여러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에 대한 인신공격을 이어갔는데 상대방의 입장을 고의적으로 왜곡했다는 비난도 빼놓지 않았다. 그들은 멈출 수가 없는 듯싶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캠벨의 발언이 화가 나서 한 말인지 아닌지를 놓고 싸웠다. 캠벨이 부인했을 때, 라이스는 그들이 고의가 아니라 화가 나서 한 말이라면 그들이 더 변명할 만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그런 다음 토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성령에 대한 토론이 며칠간 부분적으로 빛나갔다. 그것은 20년 전 장로교 지도자가 캠벨이 장로교 교사 윌리엄 맥칼라(William MacCalla)와의 토론에서 이겼다는 것을 인정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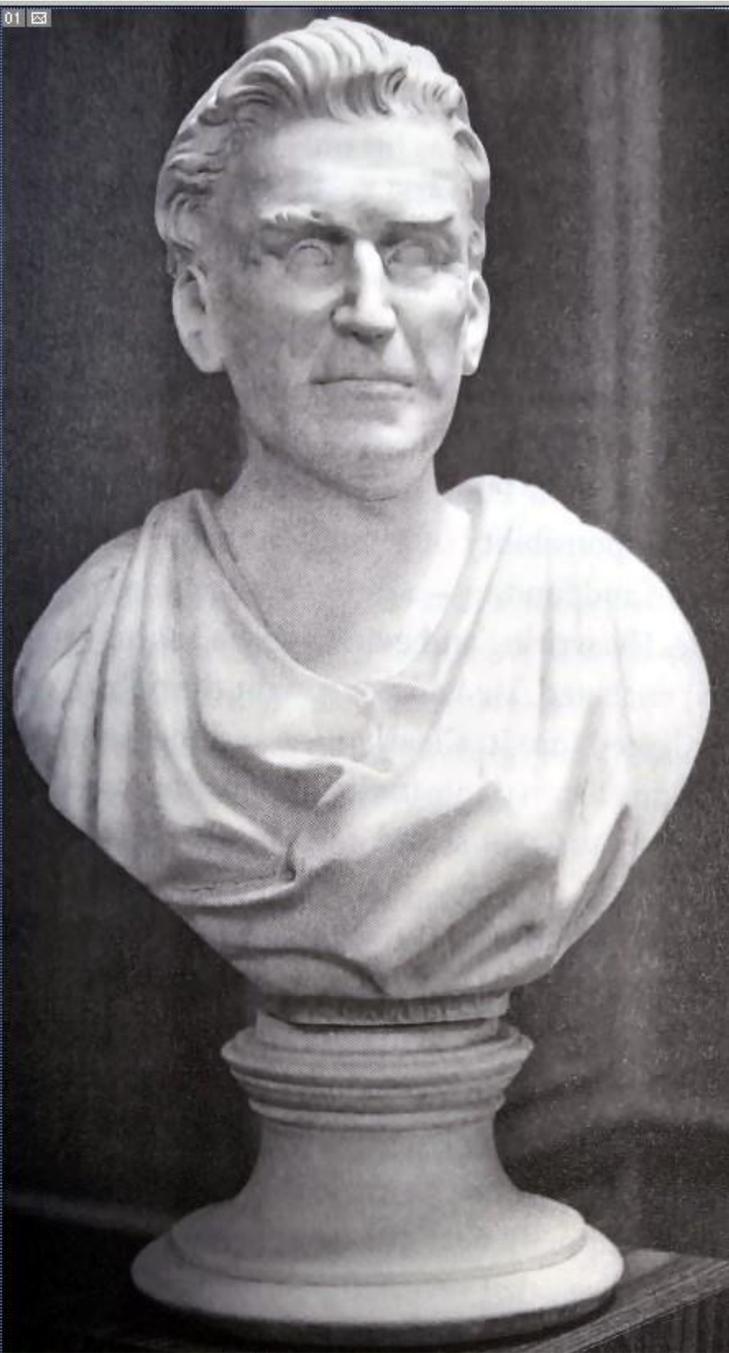
- **인신공격**은 토론 마지막 날에도 계속되었다.
- 12월 2일 토요일에 두 사람은 신조들이 본질적으로 이단적이고 분열적인가에 대해 설파(說破)하였다.
- 라이스의 첫 발표 후 캠벨은 “경건하다고 주장하는 사람한테서 그런 왜곡과 남용(濫用) 덩어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선언하였다.
- 라이스는 캠벨이 “유창한 연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와 관련된 주장들을 회피하고 단지 권고들만 해왔다고 답하였다.
- 다행히도 오후 2시가 지나서 사회자들은 토론회의 종결을 선언하였다.

- 캠벨은 1844년 1월 <새천년시대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지에 실린 토론에 대한 간략한 설명에서 **장로교도들의 과장된 승리 주장**을 폄하하였다.
- 그는 “내가 지금까지 참여했던 토론 중에서 분명히 가장 당파적인 토론이었다.”라고 결론지었다. **장로교 언론이 “약식(sprinkling)이 침수(dipping)를 상대로 영광스럽게 승리했다”고 선언했지만**, 캠벨은 전체 토론 내용을 담은 책이 출판되기 전에는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장로교의 자랑은 “근거 없는 날것의 주장”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에 캠벨은 별다른 반박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저 책을 읽어보면 누가 승리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 캠벨은 다른 토론들 때와 달리 원고가 어떻게 출판용으로 최종 확정되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
- 사회자들이 생략하기로 합의한 캠벨을 비판하는 여러 섹션이 포함되었고, 초판에서 수많은 오타들을 발견했다는 캠벨의 비평을 보면, 캠벨은 초판과 거의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두 토론자는 “토론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사용한 사실들, 문서들 및 논쟁들의 완전한 공개”임을 인증하는 증명서에 서명하였다.
- 캠벨은 이 책의 판매 수익금 전액을 두 곳의 미국 성경공회에 기부할 것을 일찍부터 주장하였다.

[두 곳의 공회는 미주성경공회(American Bible Society)와 미주해외성경공회(American and Foreign Bible Society)였는데, 미주해외성경공회는 캠벨이 활동했던 침례교 단체로서, 1836년 미주성경공회에서 분리되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미주성경공회가 βαπτίζο를 ‘침례하다’가 아닌 ‘세례하다’로 영어성경에 음역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고집하였기 때문이다.]

- 토론을 **책으로 출판한 최초 시기**는 1844년 3월 또는 4월이었다.
- 다섯 개의 출판사들에 의해 다섯 개의 도시들에서 출판되었다.
- 캠벨은 그 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존 H. 브라운(John H. Brown)에게 2,100달러에 팔았다고 말하였다.
- 존 브라운은 토론을 처음으로 제안한 목회자였다.
- 캠벨은 그 책의 출판과 판매에 어떤 관여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1843년 제작된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의 흉상. 이 흉상은 나단 라이스(N. L. Rice)와 토론회를 개최한 해에 제작되었다. W. H. Edge가 뉴욕의 제임스 카 도자기 공방(James Carr Pottery workshop)에서 조각되었으며, 1876년 5월 10일 개관(開館)된 필라델피아 백주년 전시관(Philadelphia Centennial Exhibition)에 미주도기도예를 대표하여 전시되었다. 웨스트 버지니아(West Virginia) 주 베다니 대학(Bethany Bethany College)의 T. W. 필립스 기념 도서관(T. W. Phillips Memorial Library), 기록보관소 및 특별 컬렉션(Archives and Special Collections)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 장로교인들 사이에서의 판매는 분명히 활발하지 않았고, 브라운은 캠벨의 개혁운동의 교회 지도자인 C. D. 로버츠(C. D. Roberts)에게 권리를 팔아 넘겼고, 로버츠는 1857년 일리노이 주 잭슨빌에서 수많은 재판본들 중 첫 번째 재판본을 출간하였다.
- 캠벨과 라이스는 토론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서로를 비하하고 공격하였다.
- 1844년까지 서로 경합하는 기사들이 계속되었고, 캠벨은 12월 〈새천년시대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지를 라이스(Rice)의 악의적인 암시들, 진실의 억압, 절대적 날조들, 사실의 왜곡들에 대한 기술(記述)로 마감하였다.
- 캠벨이 라이스를 마지막으로 언급한 글은 1857년이었다.

- 캠벨은 **로버트 오웬(Robert Owen)**을 토론회에서 자신의 명예로운 유일한 상대였다고 설명하면서 오웬은 “N. L. 라이스 박사의 문자적 대척점”(literal antithesis of Dr. N. L. Rice)이었다고 말하였다. 라이스는 나쁜 추론을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능력자로 “예수회 궤변술의 전당에서 최고의 자리”(highest niche in the temple of Jesuitical casuistry)를 차지할만한 자였다.

- ▶ 영화: 청년 알렉산더 캠벨의 하나님과의 씨름(장로교 목사 John Walker와 무신론자 Robert Owen과의 토론 장면); 번역, 자막, 해설: 조동호(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 ▶ [http://kccs.info/Wrestling with God_Video of the Early Life of Alexander Campbell.mp4\(1280x720\)](http://kccs.info/Wrestling with God_Video of the Early Life of Alexander Campbell.mp4(1280x720))
- ▶ [http://kccs.info/Wrestling with God_the Early Life of Alexander Campbell.mp4\(720x480\)](http://kccs.info/Wrestling with God_the Early Life of Alexander Campbell.mp4(720x480))

캠벨은 왜 평생 동안 라이스와의 논쟁에 대해 그토록 분노하고 수세적인 태도를 유지했는가? 분명히, 켄터키 장로교 지도부와 캠벨 사이에는 상당한 적대감이 있었다. 캠벨은 라이스와 논쟁을 벌였을 때 55세였다. 3년 전 캠벨은 베다니 대학을 적절한 직원과 자금으로 운영할 책임을 맡았는데, 이 임무는 그의 여생에서 상당한 시간을 차지하였다. 그의 저술과 편집은 물론이고 광범위한 순회 설교활동은 줄어들지 않고 지속되었다. 그는 라이스와의 토론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지만, 자신이 그 논쟁에 휘말렸다고 느꼈다. 라이스와 켄터키 장로교 지도부는 단순히 진리를 추구한다며 그들이 자주 언급한 순수한 동기와는 상관없이 캠벨 개혁의 성장을 늦출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 하지만 그것은 양면적이었을 것이다.
- 캠벨은 기껏해야 노골적으로 말하는 성마름과 응졸함에 빠져 있었고, 최악의 경우 그의 엘리트주의와 오만함을 부각시키는 그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 아마도 그는 토론이 변질된 것에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질문을 피한다거나 부정직하다는 비난을 양쪽 모두 끊임없이 되풀이하였다. 토론이 끝난 후 양측이 서로 우리가 이겼다거나 적이 대패(大敗)했다고 떠벌린 것은 캠벨이 라이스만큼이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눈에 띄게 드러냈다.

- 캠벨이 그것에 거의 강박관념이었던 것 외에도, 라이스와의 토론은 그의 경력에서 그의 개혁 프로그램의 잠재적 약점을 드러낸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 캠벨의 1847년 스코틀랜드로의 여행과 노예제도에 대한 논란으로 투옥된 사건은 1850년대의 다른 사건들과 함께 무언가 불길한 조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캠벨의 점증하는 두려움을 고조시켰다.
- 이러한 사건들은 그가 축복받은 나라에서 사도시대의 복음과 사물들의 직제의 진보와 승리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재평가하도록 이끌었다.

알렉산더 캠펬 대對 장 칼뱅

Alexander Campbell versus John Calvin

알렉산더 캠벨 대 장 칼뱅

알렉산더 캠벨

- 신약성경교회 회복
- 예배의 단순성, 유무악기
- 그리스도 중심성
- 매주 간소한 주의 만찬

장 칼뱅

- 신약성경교회 회복
- 예배의 단순성, 무악기(On Ps. lxxi. 22; On Ps. lxxxii. 3; On Ps. xcii. 1)
- 그리스도 중심성
- 매주 간소한 주의 만찬 (Institutes 4.10.19)

장 칼뱅의 개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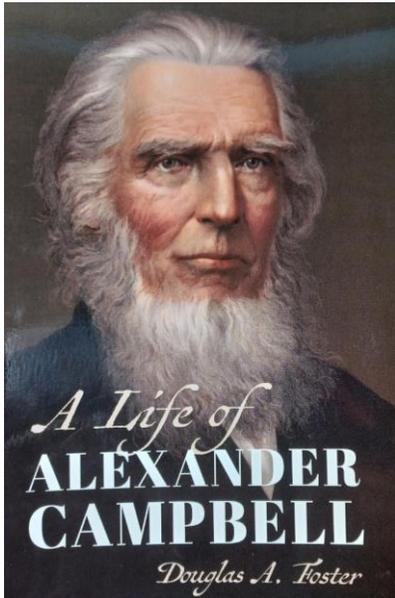
- 첫 번째는 말씀의 중심성이다. 옛 언약 예배와 새 언약 예배의 차이점은 **낡은 것은 복잡하고 새로운 것은 단순**하다.
- 두 번째는 예배의 단순성이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공적 예배의 단순성은 영광을 축소하지 않고 오히려 높인다.
- **To return to the simplicity of the early Christians.**
- **Simply restoring the use of music sanctioned by the Bible and followed by the ancient church.**
- **the Eucharist with “great simplicity” (Institutes 4.10.19).**

장 칼뱅의 개혁의 특징

- 구약의 악기사용은 율법의 훈련과 모형과 그림자이므로 그리스도교 예배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On Ps. lxxi. 22).
- 복음의 맑은 빛이 율법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하나님을 더 단순한 형태로 섬겨야 하므로 선지자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명한 것을 모방하는 것은 어리석고 그릇된 행동이다(On Ps. lxxi. 22).
- 구약 아래 있는 그의 백성과 신약 아래 있는 그의 백성 사이에 차이점이 관찰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교회가 전성기에 이른 지금, 지나간 경륜의 시대의 그림자를 소개하는 것은 복음의 빛을 묻기 위한 것일 뿐이다(On Ps. xcii. 1).

알렉산더 캠벨의 개혁의 특징

- 자연, 신화, 여러 종교 = 별빛
 - 모세와 구약 = 달빛
 - 예수님과 신약 = 햇빛



- 19세기 종교개혁가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 1788-1866)은 인류시대를 '별빛 시대' (=족장시대), '달빛 시대' (=모세시대), '새벽빛 시대' (=세례 요한),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태양빛 시대' (=그리스도교)로 구별 함.

알렉산더 캠벨의 개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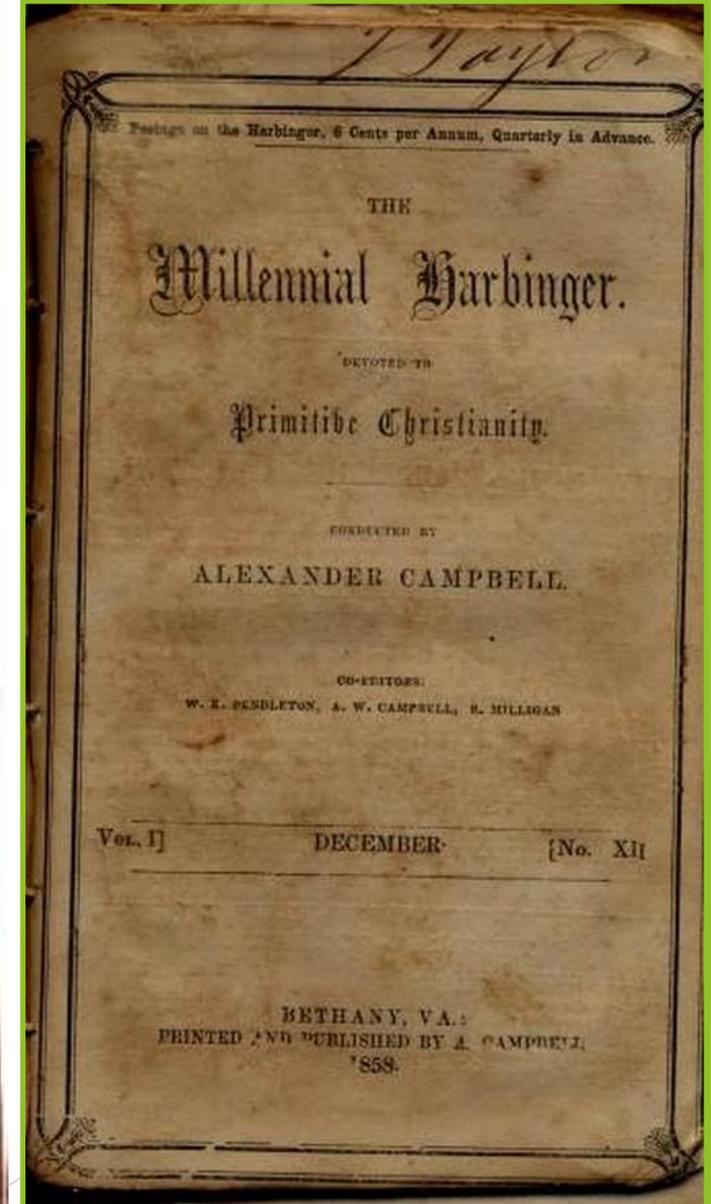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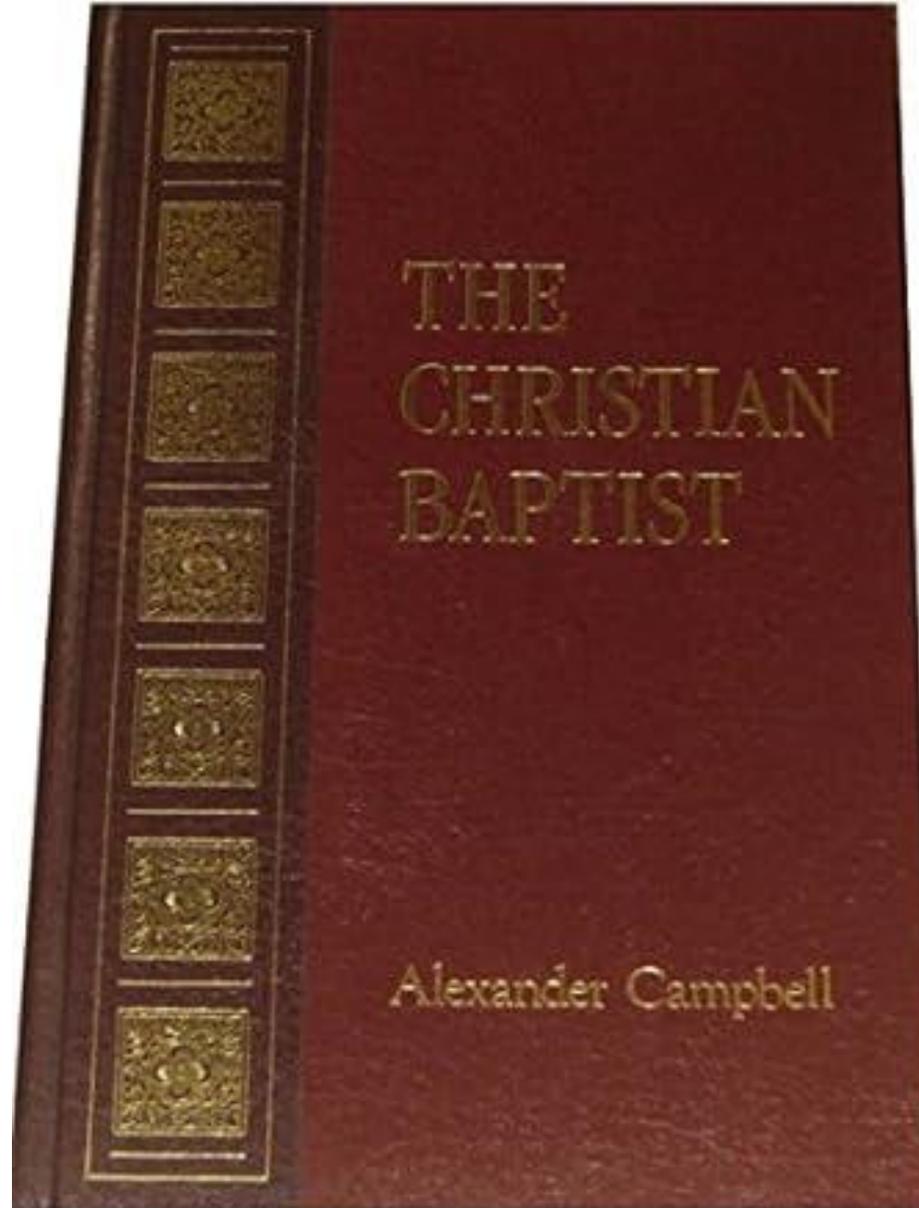
-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율법에 관한 설교,**’1816년 9월 1일, 28세 때)
- ‘**옛 질서(직제)들의 회복**’(A Restoration of the Ancient Order of Things) 이란 일련의 기사들을 통해서 ‘**신약성경 그리스도교 회복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침. 〈Christian Baptist, 1823-30〉

알렉산더 캠벨
〈그리스도인
침례자〉

(Christian Baptist,
1823-30)

〈새천년시대의
선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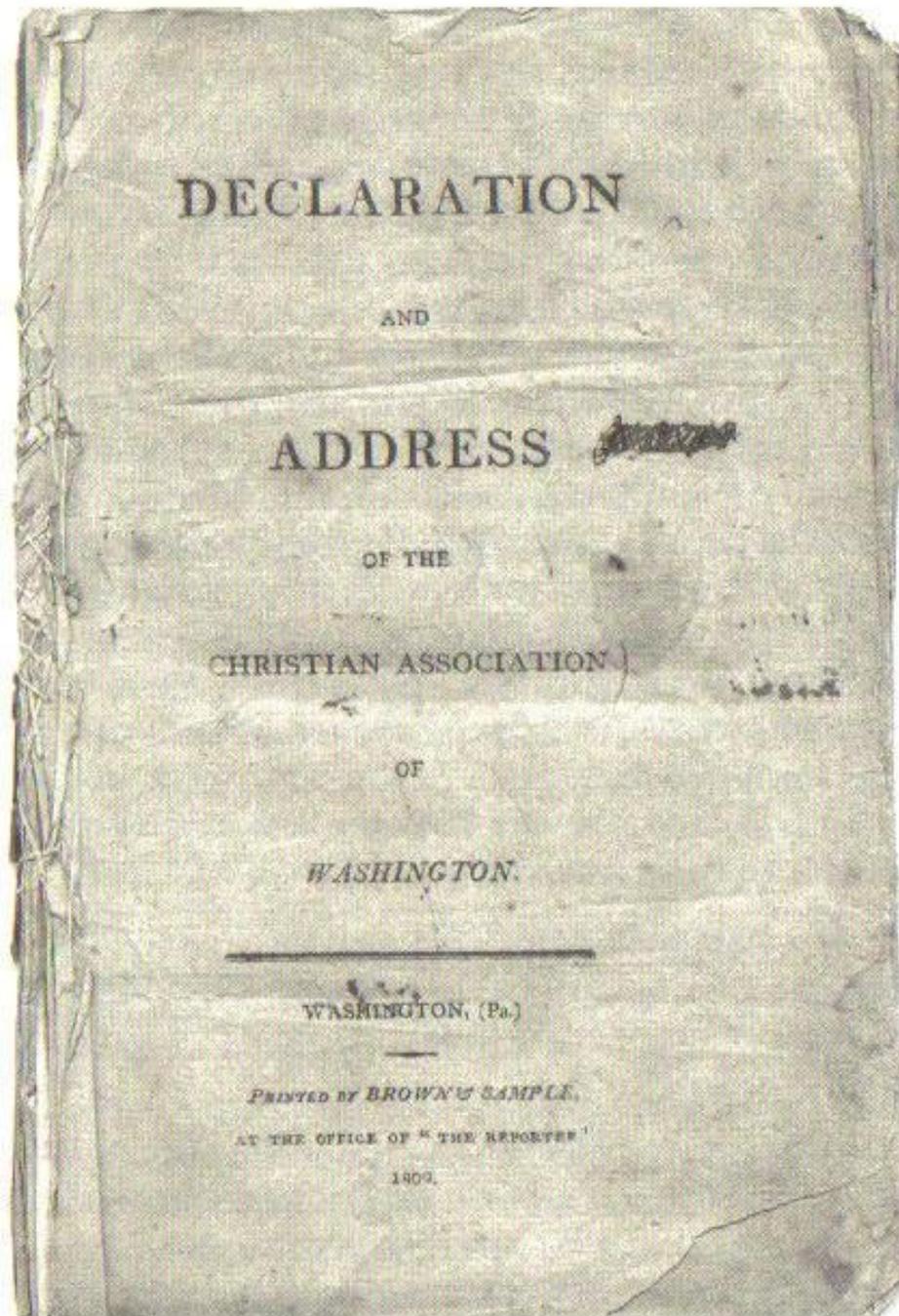
(Millennial
Harbinger, 1830-70)



토마스 캠벨의 <선언과 제언>

-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성경 그리스도교의 사도들의 권위에 의해서 분명히 명령된 것 즉 명백한 용어나 승인된 전례(前例)”가 아닌 것들로는 결코 “믿음의 조항”이나 “교제의 시금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제3명제).
- 둘째, 신구약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완전하고 통전적인 계시어서 서로 분리될 수 없지만, “직접적이고 적절하게 그들의 즉각적인 목적에 속하는 것에 관해서는 신약성경이 신약성경교회의 예배와 징계와 치리를 정한 완전한 헌법이고, 교회구성원들의 특별한 의무를 정한 완전한 규율인 것은, 마치 구약성경이 구약성경교회의 예배와 징계와 치리를 정한 것과 같으며, 구약성도들의 특별한 의무를 정한 것과 같다”(제4명제).

토마스 캠벨
〈선언과 제언〉
(Declaration &
Address,
Washington PA,
1809)



토마스 캠벨의 〈선언과 제언〉

- 셋째, “신약성경이외에 어떠한 것도 믿음 혹은 교회예배에 유입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교제의 시금석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제5명제).
- 넷째, “신학적으로 추론된 어떠한 해석이나 진리도 교회의 신앙고백의 위치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제6명제).

P. H. 웰시머의 〈신약성경교회에 관한 사실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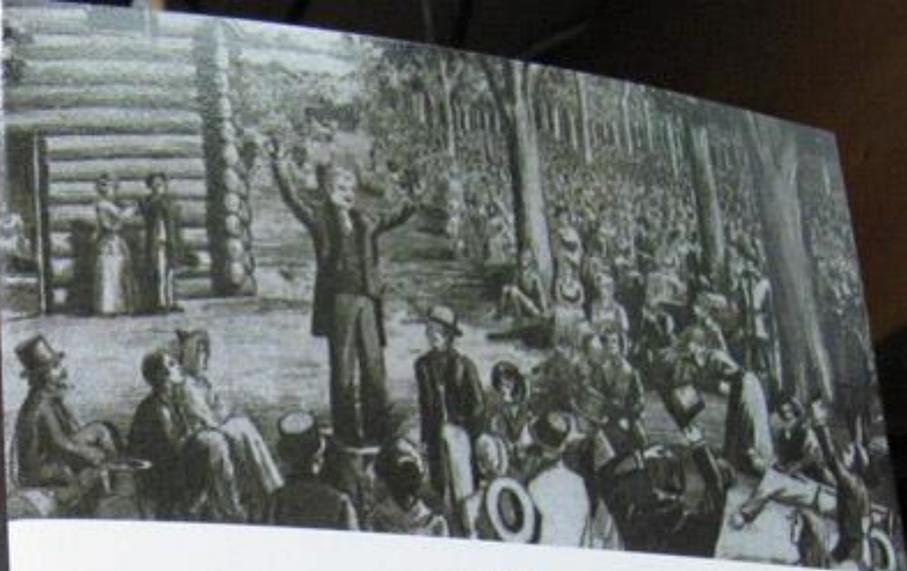
-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것은 신약성경에 쓰여 있다... **구약은 유대인을, 신약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책이다...** 구약의 계명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효한 이유는 신약성경에서 다시 제정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성경이 필요한 것은 신약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함이다.”

필 하워드 웰시머
〈신약성경교회에
관한 사실들〉
(Facts Concerning
the New Testament
Church, n.d.)



FACTS
CONCERNING THE
NEW TESTAMENT
CHURCH

By P. H. WELSHIMER



그리스도의 교회들 운동 대사전

The Encyclopedia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

편집자

다들러스 A. 캠프벨
폴 W. 캠프벨
앤서니 L. 워렌
다. 뉴턴 윌리엄스

후원기관

그리스도의 교회를 역사학회
개혁신구대교회(USA)

한국어판 총괄편집자

정남수
조영호
김진영
박종구

출판총괄 후원기관

그리스도신학대학교



대한기독교교회회

알렉산더 캠벨 대 장 칼뱅

알렉산더 캠벨

- 신자의 침례
- 주의 만찬의 상징설, 기념설,
- 구원론: 믿음, 회개, 신앙고백, 침례를 구원의 과정으로 봄, Five-Finger Exercise
- 교회정치: 개교회주의, 장로회(임기제)

장 칼뱅

- 유아 세례
- 주의 만찬의 영적 임재설
- 구원론: 택한 자에게 제한적으로 성령의 조명과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
- 교회정치: 국가교회주의, 장로회(임기제)

알렉산더 캠벨 대 장 칼뱅

알렉산더 캠벨

- 신자의 침례 - 신앙 양심에 따라 복음의 부름에 응답
- 홍해 도하를 침례의 모형과 그림자로 봄

- 침례 -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한 남녀노소, 구원의 표
- 교회의 구성 -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선물 받은 남녀노소, 차별 없음

장 칼뱅

- 유아 세례 - 국가교회제도, ***예정론과 선택론에 모순
- 할례를 세례의 모형과 그림자로 봄

- 할례 - 출생 8일째 날 남자 아이에게만, 언약의 표
- 이스라엘의 구성 - '계명의 아들들', 곧 13세 때 성인식을 마친 남자, 성인 남성으로 제한

알렉산더 캠벨 대 장 칼뱅

알렉산더 캠벨

- 침례의 방법 -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수
- 침례의 상징 - 죽음과 부활
- 침례의 대상 -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한 자
- 침례의 목적 - 죄 사함, 구원, 성령의 내주 동거를 위해서
- 강조점 - 개인의 신앙 양심

장 칼뱅

- 유아세례의 방법 -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 뿌림
- 세례의 상징 - 죽음과 부활
- 세례의 대상 - 유아(보호자가 신앙고백), 신앙을 고백한 성인
- 세례의 목적 - 믿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입교를 위해서
- 강조점 - 선택된 자에게만 하나님은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은총으로 베푸심

최덕성 박사(브니엘 신학교 총장)의 침수세례 반대 주장

그리스어 ‘뱁티조’ 또는 ‘뱁티스마’는 우슬초로 피를 적셔 뿌리거나, 염색하거나, 발목 깊이의 물에 들어가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다. 침례교 신자들이 이해하는 침례는 잠수 예식, 곧 잠례(潛禮)를 의미한다. ‘뱁티스마’ 또는 ‘뱁티조’는 한국말로 ‘잠례’를 의미하지 않는다. 잠례 또는 침례가 아니라 적셔서 씻는 형태를 의미하는 우리말 ‘세례’로 번역함이 바람직하다.

최덕성 박사의 침수세례 반대 주장에 대한 재고再考

(롬 6: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고전 10:2)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골 2:12)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벧전 3:21)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최덕성 박사의 침수세례 반대 주장에 대한 재고

침례를 설명하는 이들 성구들에서 “죽으심”,
“장사”, “구름과 바다”, “일으키심”,
“부활”이란 단어들이
“우슬초로 피를 적셔 뿌리거나, 염색하거나,
밭목 깊이의 물에 들어가는 행위”를
연상시키는가, 아니면 침수를 연상시키는가?

최덕성 박사의 침수세례 반대 주장에 대한 재고再考

‘뱃티조’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떠나서 ‘뱃티스마’를 실천하는 유대교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침수세례 (Tevilat)를 행한다. 침수세례의 특징은 물 속에 완전히 담그는데 있다. 머리칼 하나라도 물 속에 잠기지 않으면 그 침수세례는 무효가 된다. 다만 유대교인들의 침수세례나 손씻기 같은 것들은 죄 씻음이나 위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죄를 씻거나 불결한 것을 닦거나 씻는 행위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부정해진 것을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써 물속에 깊이 담그는 행위이다.

최덕성 박사의 침수 세례 반대 주장에 대한 재고再考

유대교의 침수세례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한번만 하는 개종침례로서 벌거벗고 한다. 물에 닿지 아니한 부분이 생기면 무효이기 때문이다. 새로 구입한 식기류 침례(Tevilat Keilim)도 마찬가지이다. 둘째는 반복되는 정결례도 동일하게 벌거벗고 한다. 요즘에는 헝거운 옷을 착용하거나 머리를 느슨하게 묶고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한다. 침례에 가장 좋은 물은 흐르는 자연수이지만, 여건이 허락지 않을 때에는 저수지나 바닷물 또는 침례탕을 사용한다.

최덕성 박사의 침수 세례 반대 주장에 대한 재고再考

2-3세기 그리스도교의 교회들은 **벌거벗고** 물 속에 들어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각각 한 번씩 세 번 침수례를 행하였다. 벌거벗어야 했으므로 침례식은 주로 새벽이나 저녁에 이뤄졌고 장로(감독)가 벌거벗은 여성들에게 침례를 베풀기 어려우므로 교회마다 40세 이상 혹은 60세 이상의 **여성 집사**들을 두게 되었다. 유대교의 개종침례식에서도 개종자가 여성인 경우 랍비는 문밖에 있고, 3인의 여성이 랍비의 역할을 대신한다. **유대인들이나 2-3세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발목에 차는 물 속에 들어가 세례 받기 위해서 알몸 상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참고: <사도전승>.



A prospective Orthodox convert, LaFianza, 34, is still waiting for the all-clear from the local rabbinical court affiliated with the Rabbinical Council of America so she and her family can immerse in the mikvah, or Jewish ritual bath, and formally become Jews.
유대교의 침례는 알몸 상태로 물 속에 들어간다. 2-3세기경 그리스도교의 침례도 알몸으로 물 속에 들어갔다<사도 전승>.

TULIP 교리

- **T**otal Depravity
- **U**nconditional Elect
- **L**imited Atonement
- **I**rresistible Grace
- **P**erseverance of the Saints

튠립 교리

- 완전 타락
- 무조건적 선택
- 제한 구속
- 거절할 수 없는 은혜
- 성도들의 견인

장 칼뱅의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기독교강요〉에 따르면

‘Only for the Elect’

- 성경은 선택된 자에게만 특별 계시이다
- 그리스도의 죽음은 선택된 자만을 위한 것이다
- 복음은 선택된 자만을 위한 것이다
- 믿음과 회개는 선택된 자만을 위한 것이다
-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은 오직 선택된 자만을 위한 것이다
- 구원은 오직 선택된 자만(Only for the Elect)을 위한 것이다
- 따라서 선택된 자가 아니면 모든 행위가 헛되고 헛되다